

# 法輪大法

各地講法 五

각지설법 5

李洪志



## 차 례

2004년미국서부법회설법	1
2005년맨해튼국제법회설법	87
2005년캐나다법회설법	111



二零零四年美國西部法會講法

2004년미국서부법회설법

李洪志

2004년 2월 2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 2004년미국서부법회설법

李洪志

(2004년 2월 2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이번의 박해는 이미 몇 년간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악한 생명으로 말한다면 그것들의 생존환경 · 생존의 기회는 갈수록 작아졌고, 세상에서 이번의 박해를 만든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나날을 지내기도 갈수록 어렵게 되었다. 전체 정법(正法)의 형세로 보면, 현재 인간쓰레기와 망나니들이 만들어낸 이번의 박해에 대하여 세인들도 갈수록 명백해졌다. 특히 중국대륙의 사람들은 모두 각성하고 있고, 사람들도 모두 이번 박해의 사악함을 보게 되었으며, 이번 박해의 원인도 알게 되었다. 현재의 정황은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세인을 구도하고 박해를 폭로하는 데 대하여 갈수록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다수 세인들은 사악이 청리된 후 모두 청성(清醒)해질 수 있게 되었고 모두 자신이 이지적으로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 문제를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나쁜 사람들이 계속 사악한 탄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했다. 세인들이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사악들 또한 매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인들이 더는 그것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려 하지 않는바, 이는 사악의 요소와 악인들로 말하자면 정말로 사악의 탄압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또 호랑이 등을 탔는지라 내려오기도 어렵다. 사악은 미친 듯이, 이지가 없이 박해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강화하는데, 어떻게 해도 안되는바, 점점 더 미쳐 날뛰다. 현재 내가 보기에도 끝에 도달하여 내려오려고 해도 내려오지 못하며, 내려오지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있다. 이번의 사악한 탄압을 세인들도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사악하기가 극에 달한 이번의 박해가 대법제자들에게 조성한 손상은 매우 심한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상에서도 전혀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이런 가장 악독한 한 차례의 박해였다. 다른 한 방면으로 말하면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하여 저지른 것은, 무엇이든 모두 그들 자신에 대하여 저지른 것과 같다. 왜냐하면, 장래에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배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주 중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며, 반(反)이 있고 정(正)이 있으며, 좋음(好)이 있고 나쁨(壞)이 있다. 이 일체는 또 우주 중에서 상생상극을 조성하게 된다. 사실 사람은 보아내지 못하고 악인은 더욱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번 박해는 최초로 이미 그것들로 하여금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었으며, 과정 중에서 오히려 대법제자들을 수련 성취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사용한 마음은 사악한 것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대법제자에게 대법제자로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물론 나는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박해를 받는 중에서 나와 대법제자들도 박해를 제지하였고, 중생들로 하여금 대법에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구해낼 수 없는 생명은 한사코 악을 행하려고만 할뿐, 일언일행 중에 정반(正反)이 함께 나오는 도리를 알지 못했다. 이 층의 구(舊) 우주 중에는 상생상극의 이치와 정반(正反) 두 종류의 요소가 있기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두 일반일정(一反一正)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인류 사회가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모두 이 두 종류의 요소가 동시에 체현되어 나타날 것이다.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 한 가지 일, 심지어 일념이 일어나는 것까지를 포함해 모두 정반 두 종류의 요소가 체현될 것이다. 마치 이번의 박해처럼, 그 목적이, 여러분이 다 잘 알듯이 출발점은 역시 매우 사악한 것이었지만, 그것의 결과는 악한 일을 하는 동시에 오히려 대법제자들이 박해를 반대하는 중에서 단련 성숙되게 했다. 게다가 박해가 엄중할수록 대법제자는 더욱더 성숙되는데, 악인은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나, 이 사부로서 말한다면, 정법 중에서

이번의 사악한 박해를 이용하여 대법제자를 고향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바, 대법제자들도 박해를 감당함으로써 높게 수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대법과 대법제자는 박해를 반대하는바, 이 역시 대법제자로서의 책임이다. 법에서 수련하지 않고, 박해를 감당하는 자체로는 더욱 높게 수련할 방법이 없으며, 대법제자의 표준엔 더욱 도달하지 못한다. 구세력(舊勢力), 그것이 제공한 이런 이른바 환경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정법 중에서 내가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대법에 동화되게 할 것이며, 이러한 사악 중에서 대법제자를 단련시키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법은 반드시 성공하고, 대법제자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들이 이렇게 하여도 나의 제자는 성취될 수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제자는 역시 성취될 수 있는바, 단지 사악이 기어코 이렇게 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정법에 대하여 교란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중에서 죄를 범하게 할 것이고, 그것들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생명과 세인으로 하여금 도태되게 할 것이다. 우주 중에서 확실히 일정일반(一正一反), 일리일폐(一利一弊)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이런 요소를 체현하고 있다.

사람은 이런 이치를 똑똑히 보지 못한다. 속인이 사회에

서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가 염(念)을 내보내  
 기만 하면, 혹은 일을 하기만 하면, 이미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과거에 수련인은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  
 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한마디의 말의 다른 한  
 층의 함의는, 일의 과정은 확실히 두 종류의 작용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중에서 오히려 대  
 법제자를 단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것들은 생각하지 못하  
 였는데, 이는 그것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이다. 과거 우주의  
 이치는 바로 이런 절대적인 일반일정(一反一正)이 동  
 시에 체현되는 것이었다. 인류사회 역시 이러한 것으로 일  
 체 중에서 체현되고 있어, 속인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모두  
 일정일반(一正一反)·일호일괴(一好一壞)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때리고 욕  
 하려 하면, 때리고 욕하는 중에 동시에 또 상대방에게 더(德)  
 를 주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장래에 또 실제로 갚아야 하  
 는데, 이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방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인데,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교육할 때, 늘 그들이 사회에서 강자가 되도록  
 하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이는 순진(純眞)·선량  
 (善良)에서 갈수록 멀어지며, 우주의 특성과 갈수록 멀어  
 지고, 신(神)에서 갈수록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다.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상해를 입는 것이 두려워 자기의 자녀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지를 가르쳐주는데, 사실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줄 때, 사람의 도덕·선량은 오히려 근본에서부터 파괴된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두 이런 두 종류의 작용이 생성될 것이다.

대법제자에 대한 이 몇 년간의 박해도 충분히 이러한 상태를 체현해 냈다. 일개 정권이 어떻게 사람의 신앙을 박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의 사상자유를 박탈할 수 있겠는가? 이는 역사상에서도 종래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지어 수 천 년의 오랜 문명까지도 깡그리 모두 타파했으며, 과거 수 천 년 동안 유지해온 인류의 도덕표준을 일률로 깡그리 부정했고, 깡그리 타도했으며, 또 “발로 짓밟고”, “영원히 세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해낼 수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하는 동시에 또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응보를 가져오게 되며, 이 역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신앙이 없어진 중국인은 이로부터 오히려 도덕행위의 준칙(準則)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감히 하며, 어떠한 나쁜 일이든 모두 할 수 있다. 사회의 부패는 전 방위적이며, 현재의 중국인은 입만 벌리면 바로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치도 가정에서 늘 하는 말처럼 정상적이며, 어떠한 나쁜 일을 하여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한 정권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모두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일리일폐(一利一弊)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이 속인 사회 중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인류사회에 발생했던 어떠한 변혁 · 인류사회에 나타난 무슨 거동은 사실 모두 신이 조종한 것이다. 오직 신이 사람에게 하라고 해야만, 신의 작용으로 비로소 속인 사회 중에서 부동(不同)한 상태가 출현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바, 저층공간의 썩은 귀신(爛鬼)과 신(神) 역시 안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 · 수련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오직 가장 사악하고 가장 미련한 것들만이 비로소 이지가 없는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장래에 인류는 역사에 대하여 모두 새롭게 인식할 것이다. 특히 근 백 년 이래의 역사를 새롭게 기능할 것이다.

어떻든, 박해를 반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았듯이, 대법제자들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세인들도 갈수록 각성하며, 사악과 세상에서 박해를 만든 악인은 갈수록 몰

락을 향해 가고 있는바, 그것들이 이용한 일체의 권력, 이용한 일체 통치방식은 모두 이번에 法輪功(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함으로써 역사에 따라 곧 도태될 것이다. 여러분도 보았듯이 반드시 이러할 것이다. 그럼 대법제자로서 이러한 형세에도 세인을 구도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이미 어렵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본 상황이 이러한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진상을 알리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세인들이 갈수록 명백해지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주동적으로 당신을 찾아와 진상을 들을 것이고, 사람들은 주동적으로 당신을 찾아와 공(功)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곧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에서 또 전 인민이 모두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박수) 사람이 무엇을 하든 모두 자신에게 한 것이며,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는 바로 박해자 자신에 대한 박해로서, 이는 우주의 특성이 결정한 것이다. 애초에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한 것 역시 일종 전 인민의 운동이었다. 일리일폐(一利一弊)라, 최후의 결과를 보도록 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가 강대하다고 느끼고, 당신의 선전기계가 아무리 미친 듯이 날뛰어도 소용이 없다. 깡패의 거짓날조와 기만 그러한 수단은 수련인에 대해서 소용이 없으며, 신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소란을 피워대

고 나면 신은 당신과 결산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리하다.

대법제자로서 말할 때 여러분은 더욱더 청성(淸醒)해야 하는바, 사악이 완전히 타파되기 전에 역시 힘써서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세인을 구도해야 하며,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한다. 대법제자가 오늘날 하는 일체는 모두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일로서, 모두 당신들이 신의 길을 걷는 것이다. 최후의 단계에서 느슨히 해서 안 되며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한다.

어떤 수련생은 주의해야 하는바, 내가 매번 사악이 갈수록 적어지고 갈수록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아주 많은 수련생은 곧 “오” 하며 다른 일을 모두 놓고, 전문적으로 대법의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는 안 된다. 대법제자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극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수련하면서, 동시에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바로 이리하다. 속인 사회 중에서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 외, 형식상에서는 어떠한 구별이 없다. 당신은 하나의 수련하는 사람일 뿐 표면상으로는 속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리할 뿐이다. 당신들이 오늘날 한 것들은 바로 미래를 개창해 준 것이며, 이 한 갈래의 길은 바로 이렇게 걸어간다. 이는 가장 바른 한 갈래의 길이며, 미래의 수련인이 참

조할 것인바, 그러므로 당신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어떠한 극단으로 가셔도 안 되는데, 그것 또한 인위적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장애를 만들어 줄 것이며, 번거로움을 만들어주게 된다. 나는 당신들에게 어떠한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도 하라고 하지 않는바, 그것은 아마 모두 일종의 집착으로 번거로움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이 겪었다. 내 생각에 대법제자로 말하면, 오늘날 이 한걸음에 이르러 아주 많은 일은 모두 매우 분명해졌으며, 갈수록 이지적으로 되었고, 부딪힌 문제 역시 어찌 된 일인지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서 마땅히 매우 청성(淸醒)해져야 하며, 다시는 일부 어떤 일 때문에 교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 점은, 대법제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체는 모두 법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인식과 제고는 모두 법 중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럼 대법제자로 말하면, 당신들은 당연히 법을 실증해야 하며, 그것은 무슨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한 일체는 모두 당신들 자신에게 해 주는 것으로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라고 한 것을 포함하여 어떤 한 가지 일도 나에게 해 주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매 대법제자는 원만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모두 자신의 위덕을 건립해야 하며, 특히 대법이 육성해낸 생명으로서,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모두 체현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법제자가 한 일은 모두 위대한 것이다. 보기엔 가장 간단한 전단지 배포,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 영사관에 가서 발정념(發正念) 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법제자는 정부사회·지역사회·매체의 일을 하는 등등 각종 형식의 법을 실증하는 이 일체는 모두 자신에게 위덕을 수립하여 주고 있으며, 모두 최후 원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한 일체, 자그마한 한 가지 일을 포함하여 모두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며, 대법에 해주는 일은 한 가지도 없고, 나, 이 사부에게 해주는 것 역시 한 가지도 없다. (박수)

장래에 당신들은 모두 보게 될 것인바, 법회에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평소에 내가 무엇을 더 말하는 것은 매우 적은데, 왜냐하면, 매 개인은 모두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매 개인 역시 반드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만 비로소 위덕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시시(時時)로 곳곳에서 더는 예전처럼 그렇게 당신들을 밀면서 갈 수는 없다. 단순한 법 공부 및 개인수련의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는바, 현재는 바로 대법제자가 당

신들 최후의 것과 당신들이 필요한 그 일체를 원만 시키고 있다. 보기엔 마치도 대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는 사부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부님께서 나더러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웃으심)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은 아니다, 내가 당신더러 하라는 것 역시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법은 어떠한 생명도 파괴할 수 없는바, 그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온 것이며, 그는 기성의 것이다. 단지 중생에게 전해 주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인데, 진정한 법의 구체적 표현형을 얼마나 많은 생명이 볼 수 있겠는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의 실질을 보지 못한다. 당신들이 보게 된 그 法輪(파륜)은 단지 공의 형식일 뿐, 진정으로 법을 정하는 그 룬(輪)은 일반 생명이 보기가 매우 어려우며, 고층이라 하여도 역시 볼 수 없다. 누가 정말로 법을 파괴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파괴하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는바, 중생을 구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체적인 각개 층차의 생명으로 하여금 모두 법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모두 구도 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우주의 이 생명의 가장 낮은 층차인 사람 여기를 선택하여 설법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개 층차의 생명은 모두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설법하면, 여기의 세인들이 와서 법을 들어야 하는가? 곧 이러한 생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생명은 바로 오늘의 대법제자이다. (박수) 정법은 반드시 구(舊) 우주가 성주괴멸(成住壞滅)의 최후의 그 일보에 도달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바, 다시 말하면 가장 곤란할 때에 중생과 전체 공체를 구도해야 한다. 당초에 삼계를 만든 목적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정법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다면 삼계 안의 중생은 누구이고, 어떠한 생명이 여기에 있어야 하며, 장래에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생명의 존재방식이 필요하며, 생명의 사유방식·생명의 행위와 문화 등등을 포함하여, 모두 곧 역사과정 중에서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정법 중에서 보면, 안배한 것이 매우 차(差) 한바, 왜냐하면, 구세력의 형성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많고 많은 방면은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며, 모두 질서가 있다. 바로 매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법을 전할 때 대법제자들이 대법의 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지, 만약 관(關)을 넘길 때 그래도 수련하는지, 최후의 원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지가 나타나고, 일단 박해 혹은 각종 기타 방식의 교란이 나타난다면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방면에서는 개인을 보아

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여러분도 보게 되즉, 또 하나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구세력의 출현은 정법 및 대법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심각한 교란을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교란을 하든, 한 일이 아무리 사악해도,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사실, 모두 여래 부처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박수) 보증하건대 이러하다. 구세력·씩은 귀신(爛鬼)과 악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최후에는 모두 나의 정법의 요구에 따라 완성해야 한다. 중간에 나타난 그런 각종 교란이라든가, 일부 수련생들의 각종 표현 상태라든가, 모두 구(舊) 우주 생명이 성주괴멸의 최후에 체현해 낸 상태에 불과하며, 정법에 대한 일부 교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법 자체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제자가 어떠한 고통을 받았다 하여도 최후엔 모두 신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법 중에서 하나의 이치를 알았는바, 이 우주 중에서 어떠한 생명이 받은 고통이든 모두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다. 특히 대법을 수련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뿐만 아니라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로서, 오로지 최후까지 여전히 법 중에 있다면, 어떠한 결과이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두 원만이다. 다시 말하면, 사악 그것이 어떻게 박해하든지 모

두 목적에 도달할 수 없으며, 최후에는 모두 정법의 필연적 결과에 따라 원용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리하다. 정법에 대하여 교란을 하였으면, 그럼 정법 중에서는 곧 이 교란형세를 이용해서 하는데, 최후에는 역시 정법이 필요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바, 반드시 이리하다.

장래에 대법제자가 걸어 지나온 후, 여러분이 그 일체를 본다면, 반드시 이리한 것이다. 우주의 신으로 말하자면, 그가, 우주가 흥쇠(興衰) 중에서 성주괴멸을 향하여 나아가는 최후 과정의 무서움을 보면, 누구도 훼손되려고 하지 않으며, 모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전 우주가 구원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중생들은 온갖 방법을 생각하여도 결국에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생명이 생각한 방법·한 일은 모두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아무리 높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모두 그를 진선(盡善)한 것·진미(盡美)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두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중생은 또 최후의 이 무서운 후과(後果)를 보게 되어, 모두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였기에, 우주 중의 구세력의 출현을 조성하였다.

우주의 전체 정법이 오늘 이 일보로 걸어오게 된 것을, 사실 나는 이미 사람의 언어로 더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바,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해낼 수 없으며, 모두 개괄적 형용이다. 애초에 하려던 일은 모두 하였는데, 사실 우리 자신의 우주는 다 하였다. (박수) 오직 이 거대한 천체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최후의 그러한 요소들만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인류 표면의 것들을 격리시킨다.

현재 인류 사회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상태는 우주 정법의 형세와 매우 유사하며, 갈수록 명백해지는데, 내 생각에 이 형세는 아마 더욱 빨리 변하게 될 것이다. 법정인간이 시작한 후가 되면 그럼 진정으로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정법이 개시될 때 삼계 이 부분을 이미 포위하였다. 이러면 삼계는 원래의 우주 천체와 격리되어, 위의 중생과 아래의 중생은 접촉할 수 없게 되며, 장래에 인간의 일을 할 때와 삼계 밖은 또한 어떠한 관련도 없게 된다. 근대에 상계(上界)의 중생들도 이 일체를 보게 되어 분분히 정법하기 전에 하세하여 환생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 가족이지만, 실제로 인피 안은 모두 원래의 생명이 아니다. 허다한 고층생명이 법을 얻으려고 내려와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뿐만 아니라 허다한 같지 않은(不同) 요원한 우주 천체에서 온 생명이다. 사실 이번 한 차례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이 마땅히 법을 얻어야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애초에 구세력에 의해 격리되

어, 그들로 하여금 법을 얻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분은 또 이번의 박해 중에서 대법에 대하여 깊은 방법이 없는 죄업을 범하여 곧 도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또 일부분은 대법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련할 수 없게 되어버려 곧 미래의 새로운 기원에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장래의 일이다.

다음으로, 말한 김에 한 가지 일을 더 말하겠는데, 최근 아주 많은 대법제자가 일부 책을 썼다. 일부 것들을 내가 간단히 보았는데, 출발점은 모두 매우 좋았다. 대부분 쓴 것이 모두 수련과 박해를 받은 것 및 박해를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대법제자 중에서 유전시켜서는 안 된다. 전제는 긍정적인바, 여러분은 책의 형식으로써 법을 실증하고 있고, 세인을 구도하고 있는 것으로, 한 것은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대법제자들이 원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떠한 일도 모두 오늘날의 대법제자들이 법을 실증하는 이 형식을 교란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중대한 일에 관련되는 일이다. 법 공부를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대법제자 중에서 대법 자체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것을 유전시켜서는 안 되며, 절대로 대법제자들에게 교란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오늘날 이 특수한 형세·특수한 환경 하에서, 또 박해를 받는 이 특수한 형식이 나타났기에, 나는 다시 이 일을 좀 말해 보겠다. 이러한 책은 속인 사회 중에서 보급할 수 있으며, 대법제자들도 대법제자가 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속인 사회 중에서 널리 보급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협조하여 할 수 있다. 모두 좋은 일이다. 단지 대법제자들 속에서 파동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법회에서, 대법의 책을 제외하고, 법 자체가 아닌 어떠한 자료·녹음 녹화(音像)자료 등등은 모두 법회에서 팔지 말아야 한다. 법회와 수련생을 시장으로 여겨서는 더욱 안 되며, 대법제자를 상대로 하여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홍법과 진상을 알리는 등 자료를 사회에 보급해야 하는바, 바로 이리하다.

아래에 한 단락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문제를 좀 해답해 주려고 한다. (박수) 여러분은 쪽지를 제출할 수 있는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제자: 법률적으로 프랑스 경찰의 행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부: 중국 지도자가 프랑스를 방문한 기간에 여러분은



가서 청원하고, 동시에 환영을 표시하는바, 원래는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 패거리 중의 일부 깡패들이 기어코 일을 만들어, 진상을 모르는 프랑스 경찰들로 하여금 수련생을 교란하게 했다. 이 일 자체는 물론 사악이 만들어 낸 것이고,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 깡패집단의 그 무리가 만들어 낸 것이다. 민주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완전히 다른 국가, 사악에 통제 당하고 있는 정부의 지휘에 따라 인권을 박해했는데, 이는 민주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는 무슨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다.

제자: 태국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어떤 수련생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 냉정(冷靜)하지 못하고 언어가 과격합니다.

사부: 우리 대법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선념(善念)에 입각하여 냉정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든 아니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든, 모두 사람들이 대법제자의 아름다움과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보게 해야 하며,

어떠한 과격한 일도 절대로 하지 마라. 당신이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 진상을 알리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과격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른 일면(正面)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선(不善)은 독해를 받은 사람의 사상 속의 그런 사악한 요소를 해체 시킬 수 없으므로, 당신은 바른 일면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선(善) 그것은 가장해 낼 수 없으며,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하나의 상태도 아니며, 선은 진정으로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며, 그것은 수련을 통해서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비로소 체현되어 나올 수 있다. 중생들 앞에서, 당신의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당신의 염(念)이 움직이자마자, 좋지 않은 요소를 바로 해체 시킬 수 있고, 세인들을 독해하는 것과 사람의 사상요소 중의 좋지 않은 것을 바로 해체 시킬 수 있어, 사람은 알게 되고 당신은 그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진정한 선(善)의 강대한 역량의 작용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체 시킬 수 없고, 당신은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특히 극단적으로 하는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는데, 절대 좋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바, 바로 당신이 수련한 능력이 체현되어 나오지 못하고, 당신의 선(善)도 체현되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모두 대항해서 하거나 싸우려는 생각을 품고 하지 마라. 이것은 모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설사 영사관에 가더라도 그러하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역시 자비로워야 한다. 사악한 생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바, 우리가 발정념 중에 청리하고 있는 그러한 인류에 속하지 않는, 사악한 박해를 만들어 내는 요마귀괴(妖魔鬼怪), 그러한 썩어빠진 귀신, 흑수(黑手)는 당신이 어떻게 대해도 모두 문제가 없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善)해야 한다. 사람을 구도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구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대해서 선하지 않다면 당신은 사람을 구도할 수 있겠는가?

제자: 생명체가 많이 생성됨에 따라, 어떤 생명체는 사(私)가 생겨,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우주가 부패한 원인의 하나입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사부: 사(私)를 위하는 것은 과거 우주의 근본 속성이었는바, 성주괴멸(成住壞滅)과 생로병사(生老病死)도 이 속성이 가져온 필연성이었다. 장래의 법은 원용(圓容)한 것이고 공(公)을 위하는 것으로, 우주의 근본속성이 개변됨으로써, 우주의 과정과 생명의 특징(特點)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했다. 우주의 근본속성이 우주의

근본상태를 결정한다. 생명의 불순함과 부패된 생명이 아래로 떨어지기에 이르기까지 다 성주괴멸이 조성한 것이다. 성주괴멸 자체도 우주의 근본속성이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근본속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당신은 지금 사람의 사상으로 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 우주의 생명이 많고 적음은 정수(定數)가 있는 것으로, 생명이 나쁘게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신은 없는 곳이 없고, 생명도 없는 곳이 없으며,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공기 중에는 공기를 구성하는 입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일체 물체는 모두 미시적인 입자와 더욱 미시적인 입자가 더욱 큰 한 층의 입자를 구성한 것이다. 매 한 층 입자에는 모두 생명이 있는데, 게다가 매 한 층 입자에는 또 방대한 생명군(生命群)이 있으며, 어떤 것은 체현되는 공간이 다르다. 이런 것을 과학의 방법으로는 지금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정도로 많으며, 한 알의 흙을 들어 보아도 그 위에는 무수한 생명이 있다. 이것은 세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 입자를 당신이 그것을 지구만큼 크게 확대한다면, 당신이 보라, 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겠는가? 이 한 알의 흙도 아직

가장 미시적인 입자가 아닌 것으로, 그 더욱 미시적인 입자, 더더욱 미시적인 입자는 거의 무궁무진하게 미시적인데, 이는 미시적인 데로부터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더욱 큰 입자, 분자보다 더 큰 더더욱 큰 거시적인 거대한 천체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가? 정체상(整體上)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어야 하는가? 우주는 하나의 번영하고 비할바 없이 거대한 천체인바, 일체에 모두 생명이 있고, 일체는 모두 생명이며, 생명이 많기로 없는 곳이 없다. 생명의 좋고 나쁨과 생명의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는바, 일체 생명의 시일이 길고 짧은 그것은 과거 우주의 특성이 결정한 것으로, 과거는 바로 성주괴멸의 규율이 조성한 것인데, 장래의 법은 원용한 것이다.

제자: 현재의 모습은 元神(웬선) 및 수련 성취된 후의 모습과 같습니까?

사부: 이 문제는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바, 위로 올라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젊으며, 보기에는 당신과 같다. 당신이 오늘날 노년이든 중년이든 아니면 젊은 간에, 아마 당신의 元神(웬선)은 다 이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예쁘다는 이 점은 틀림없다.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움은 예쁨을 포함한다. 아주 높은 층

차에 이르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보에까지 수련 된다면, 예쁘기가 지금과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데, 전혀 지상의 사람과 같지 않으며, 사람에서부터 거기까지 승화하여 조성된 경지의 표현이다.

제자: 에너지 마당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특별히 강합니까? (웃사람 웃음)

사부: 신수련생이 제출한 문제이다. 어디라 할 것 없이, 똑같이 강한데, 다만 당신의 신체의 민감 부위가 다를 뿐이다. 어디가 민감하다고 해서 어디가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신체의 변화는 공의 작용 하에서 같은 것이다.

제자: 중국대륙에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는 일부 수련생들이 있는데, 그들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사부: 이런 일은 현재 나도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다. 사실 여러분도 아주 똑똑히 알고 있는바, 한 사람이 대법 중에서 이익을 얻었는데, 대법이 박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제도 될 수 있겠는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 한 사람이 위협에 부딪힌 것을 보고 그를 구해주었지만, 돌이켜 그가 그를 구해 준 사람이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보고

도 그는 상관하지 않는데, 그가 좋은 사람인가? 대법이 육성한 생명, 대법이 부여한 새 생명으로서, 대법제자들이 모두 박해받고 있고 대법이 파괴되는 이런 형세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오히려 대법을 수호할 수 없다면, 그것이 대법제자인가? 최저한도의 좋은 사람 자격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게다가 당신은 진정으로 이익을 얻었던 사람임에랴. 이는 신(神)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나쁜 생명으로서, 법을 직접 박해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다. 왜냐하면, 대법제자들을 박해한 사람 그는 대법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악인들보다 더 나쁘다. 게다가 이것은 우주의 일체 생명을 육성한 대법이지 않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법의 표준이 있다.

제자: “망념(妄念)을 탕진하면, 부처로 수련되기 어렵지 않노라.”에서의 망념은 사상의 업력을 가리킵니까?

사부: 맞는데, 사상 중 업력이 반영한 가장 많은 것은 허튼 생각을 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모두 사람의 집착으로, 다수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고, 얻으려고 하나 얻지 못하는 망상인바, 그러므로 망념이라고 하는데, 헛되이 마음을 쓰는 것이라, (웃으심) 바로 이러한

뜻이다.

제자: 대만 뉴스보도의 각도는 어떻게 양안(兩岸)을 대비하는 데 치중해야 합니까?

사부: 대만 뉴스보도의 각도는 어떻게 양안을 대비하는 데 치중해야 하는가? 무슨 뜻인지 똑똑하게 쓰지 않았는데, 사실 당신은法輪功(파룬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동한 태도를 말하려 한 것 같다. 어떻게 대비하는가? 양안의 태도 자체가 대비가 되는 것이다. 같은 선조, 같은 문화, 두 지역의 대법에 대한 두 가지 태도, 그 자체가 바로 대비 되는 것이 아닌가? 진상을 알리는 문장에서 대비하는 방식으로 세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제자: 대재벌그룹, 그들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현재 이 일보에 이르러, 나는 그가 대재벌 그룹이든 중소기업 그룹이든 가리지 않는다. 어쨌든 마땅히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구하고, 해야 한다면 당신들은 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라. 구원을 받으려 하고 안 하고는 사람 자신의 일이다.



제자: 우리 지역의 한 대법제자는 대법 일이 바쁘다고 가정에서 마땅히 저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사부: 문제를 제출한 수련생도 집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부의 입을 이용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것은 어디에서든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대법제자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정의 일을 잘 처리해야 하고, 직장 환경 중의 일도 잘 처리해야 한다. 대법제자로서, 당신의 수련이 어떠한가는 세인들 앞에서 마침 이런 데서 체현된다. 당신은, 나는 잘 수련했고, 나는 대법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당신이 오히려 세인들에게 이런 방면에서의 표현이 좋지 않으면, 당신이 수련을 잘했다는 것을 어떻게 체현할 수 있겠는가. (웃음) 그렇지 않은가? 물론, 우리 어떤 대법제자들은 수련을 잘했는데, 다만 이런 방면을 소홀히 했을 따름이며, 그러나 수련을 잘한 상태는 인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인이 자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제자: 구세력이 선택한 중국의 그 사악의 우두머리, 그것의 역사는 반드시 명예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의 내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그것은 사실 무슨 내력이라는 것이 없으며, 바로

천 년 묵은 썩은 시체로부터 흩어져 나온 한 가닥의 사기(邪氣)가 두꺼비 태(胎)로 되었는데, 구세력에 선택되었는바, 좁은 속으로 질투하며 관료사회의 인간관계 중에서 그것이 사람을 다스리고 패거리를 만들며, 큰 뜻을 품지 않고 아첨하는 소인배의 그러한 것들을 양성했는데, 구세력은 사람 찌꺼기의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고 느꼈으며,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고 심악을 다 갖추고 있어, 손에서 놓기 아쉬워하면서, 때가 되면 꼭 쓰기 적합할 것으로 생각했다. 구세력이 골라서 선택한 것이고, 또 일부러 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 선택할 때 바로 사(邪)하기를 요구했고 어리석기를 요구했기에, 그것의 전반 표현은 모두 그러하다.

제자: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영사관 앞에서 연공하고, 발정념하고, 청원하는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매일 같이 영사관 앞에서 연공 하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구애받지 않으며, 비록 여건이 좋지 않지만, 모두 매우 확고합니다.

사부: 각국에 있는 영사관은 그들의 창구인데, 그것은 중국 국외 민중이 의견을 표시하는 곳이므로, 물론 갈 수 있다. 거기에도 구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의의가 중대하

며, 게다가 당신들이 한 일체는 세인들도 보게 된다. 그러나 대법제자로서 너무나 고생이 많은데, 북방의 겨울은 매우 추우며, 찬바람이 뺏속까지 파고드는데도, 대법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서 견지하고 있는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매한 사람은 모두 자신의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고 있는바, 그런 수련생들도 자신의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자주 대법제자의 위덕을 언급하셨는데, 물론 저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를 믿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한 작은 일의 위력을 보기 어려운데, 보기에는 그저 강대한 하류(河流) 중의 한 방울의 물일뿐입니다. 저는 계속 법 공부할 것이며, 일체는 모두 법속에서 명백해질 것입니다.

사부: 느끼기에는 이러하다. 왜냐하면 인류사회의 일체 생명은 기본적으로 모두 미혹 속에 있기 때문인데, 특히 사람에게 대하여 가장 심하게 미혹되게 했다. 목적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바, 바로 이 미혹 속에서 사람에게 하나의 돌아갈 기회, 수련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진상을 볼 수 없을 때, 사람이 그래도 잘할 수 있고, 게다가 고생 속에서 수련을 견지하는, 이것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관건

이다. 사람들이 모두 우주의 진상을 보게 되고, 또한 신의 존재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마다 모두 잘할 것인즉,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준다는 말도 필요 없으며, 사람을 제도할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모두 방법을 생각해 잘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며, 모두 수련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수련이라 칠 수 있겠는가? 설령 수련할 수 있다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수련은 틀림없이 매우 더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진상을 보았기에, 신이 바로 거기에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목표라, 가는데, 끝에 도달할 때까지 마냥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미혹 속에서는 그 끝을 볼 수 없고, 당신의 목표를 볼 수 없으며, 심지어 당신이 한 그러한 위대한 일도 당신은 실질적으로 발휘한 그 작용을 모두 보지 못하는 데,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당신이 걸어 나올 수 있고, 수련해 낼 수 있다면, 신마저도 탄복하며, 모두 당신이 이러한 고생과 이러한 미혹 중에서, 이러한 각종 교란이 있는 환경에서 각종 세간(世間)의 명(名)·이(利)·정(情)의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여긴다. 당신이 능히 사람 중에서 걸어 나왔을 때, 신은 비로소 탄복하며, 비로소 당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하나의 신이 되는 데 손색이 없는바, 이것이 바로 위덕이다. 만약 이렇지 않고, 이 삼계, 이 인류가 모두 우주

의 기타 층차와 똑같아서, 한 층 한 층의 진상을 모두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인류가 아니게 되며, 여기는 바로 신의 세계인즉, 최저한도로 이는 가장 낮은 한 층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가장 낮은 이 한 층 사람의 생명이 아닌, 바로 이러한 하나의 관계이다. 오늘의 대법제자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할 수 있었고, 온갖 풍우 속에서 이 몇 해를 걸어올 수 있었는데, 장래에 당신들은 그 일체를 보게 될 것이다. 소중히 하라, 여러분은 반드시 당신들이 이미 걸어 지나온 길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러므로 앞으로의 길도 반드시 잘 걸어야 한다. (박수)

제자: 자비 중의 ‘비(悲)’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사부: 글자를 풀이하는 것은 내가 대법을 전한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너무 작으며,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두 구절을 선사하겠는데, “비(非)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이 있으면 비(悲)가 아니다 (無非是人心, 有心不是悲).”

인류 사회에서, 긴긴 세월 중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데, 중국 거기는 이 역사라는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였고, 몇 천 년 이래 부단히 사람들에게, 장래에 법을 얻는 그 순간에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문화, 사유(思

維), 행위, 생활상태, 법, 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고 있었다. 이 미혹 속에서 집착심에 이끌려 진상을 볼 수 없지만, 오직 법 공부 중에서 정념이 생기기만 하면 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창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이다. 정말 많은 공을 들여, 오늘날의 이러한 인류를 육성해 냈다. 그러나 구세력이 교란함으로써, 이것은 이미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니게 되었는데, 나는 다만 선용(善用)할 뿐이다. 많은 백인 수련생, 흑인 수련생, 기타 민족 수련생들은 오늘날 중국 대륙의 그 환경 중에 있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는바, 역사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사람마다 모두 중국 대륙 거기서 걸어 나왔다. (박수) 당신의 사유는 오늘의 중국 사람들과 같지 않지만, 당신은 역사상에서, 당신은 이미 그러한 사상을 다졌으며, 생명의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날 전한 이 한 부의 법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다. 표면 문자는 모두 다르지만, 내포는 같은 것이다. 당신은 법의 내포를 알 수 있고, 법의 내포를 체득(體會)할 수 있으므로 수련 중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비’를 말하면 바로 인류에게 문화를 다져주는 중에서 육성한 것이다. ‘자비’는 사람의 감정을 초월한 신의 그 상태의 표현을 형용한 것이다. 물론, ‘자비’ 이 두

글자는 현재 속인 사회 중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실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현재 문화의 혼란이 조성한 것이다. 사람은 신을 믿지 않게 되었고, 수련을 모르게 되었으며, 사람은 감히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신을 비방하고, 수련 중의 용어를 속인 중에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 사람은 이런 짓들을 다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속인 중의 용어가 아니며, 다만 속인이 가져다가 사용했을 뿐이다.

제자: “전 국민이 모두 그것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사부: 천기는 너무 일찍 누설할 수 없다. (웃으심) (뜻 사람 웃음, 박수) 나는 이전에 당신들에게, 法輪功(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파룬궁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오해를 조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은 파룬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마다 모두 그 마의 우두머리를 욕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확실히 그렇지 않은가? (박수)

제자: 최근 한동안의 시간에 제자는 항상 일종 강대한 요소와 대항하고 있는데, 조금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지며, 심

신이 있어 본 적이 없이 피로합니다.

사부: 발정념으로 흑수를 제거하라. 현재 대법제자가 오직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표현되어 나온,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란은, 틀림없이 흑수가 한 짓이므로, 소제(消除)하는 중에서 반드시 그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늦게 얻었거나 늦게 나온 수련생, 당신의 수련과 법을 실증하는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에 함께 있으므로, 당신의 압력이 더욱 커 보인다. 물론 수련이라, 오직 정념이 좀 강하기만 하면, 보증하건대 당신은 모두 넘어갈 수 있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는데, 사람은 수련 전에 업력이 있어서, 수련 중에 소업해야 하는바, 소업하면 바로 고통이 있게 된다. 그것은 이전에 빚진 업력인데, 사부가 당신에게 전부 없애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무런 업력의 빚을 갚지 않고도 가서 신이 된다면, 신이 당신을 보아도 눈에 거슬러 한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당신이 빚진 그런 부채를 당신은 다 갚았는가? 당신의 사부가 당신에게 없애 준 것이고 당신을 대신하여 갚은 것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물론 안 되며, 그러므로 수련은 일정한 고생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말하면, 중국 대륙 이외의 수련생, 당신들이 겪은 고생은 역사상 수련인들이 겪은 고생과는 차이



가 너무나 크다. 그때는 얼마나 고생스러웠는가, 오늘날은  
그처럼 고생스럽지 않다. 오늘날은 어디가 고생스러운지 당  
신들은 아는가? 과거에는, 사람의 그 신체와 정신이 모두  
고생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지금 다만 집착을 내  
려놓지 못할 때 고생스럽다. 당신들의 고생은 모두 당신들  
이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느끼는 고  
생인데 -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어떤 사람은 항상  
나를 좋지 않게 대하는가? 나의 신체는 왜 늘 소엽하는가?  
라고 한다. 사람은 좀처럼 내려놓지 못한다. 최대한도로 얼  
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하나의 수  
련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만약 정말로 어떠한 정황 하에서  
도 모두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을 속인과 같지 않  
은 대법제자로 대할 때라면, 나는 그 일체가 모두 양상이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 노수련생들은 모두 깊은 체득이 있  
으며, 그들은 이 일체 속에서 걸어 지나왔다. 그러므로 신수  
련생들은 노수련생들에게 이런 방면에서 많이 묻고 가르침  
을 청하고, 이전에 내가 말한 법을 많이 보면, 이러한 문제  
에 대해서는 모두 상당히 많은 해답이 있다. 그밖에 최근  
삼계에 비집고 들어온 나쁜 신(혹수)도 직접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데, 아주 많을 때에는 그것들이  
한 것이다. 발정념 중에 그것들을 소훼(銷毀)하여, 교란을

배제하라.

제자: 은사께서 저를 구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빛을 많이 저서, 각종 속인의 마음과 집착심으로, 매우 조급한데, 사존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부: 나는 당신을 구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위해 당신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데, (못사람 웃음) 나는 다만 당신에게 수련하라고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은, 나는 현재 그렇게 많은 돈을 빚져,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하지 못하는데, 스승님께서 저를 도와 돈을 벌게 해주어 이 돈을 모두 갚게 되면,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수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알려 주는바, 당신 그것은 수련이 아니며,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수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이 쪽의 것이 아니면 저쪽의 것으로, 모두 겪어야 할 고생이 있는바, 바로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당신이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때문이다. 당신이 수련할 수 있다면, 일체는 아마 모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수련은 오히려 실재적이고도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나는 수련하고, 나는 날마다 연공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오직 연공만 하고 있다면,

나의 이러한 일을 사부님께서 모두 없앨 수 있으며 모두 개변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감추고 있는바, 당신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개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락이 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집착이 감추어져 있으며, 자신을 속이지만, 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하나의 수련인이 될 때, 진정으로 정정당당한 대법제자로 될 때, 일체는 모두 개변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황은 흑수들이 교란하고 있는 것인데 정념 중에 엄숙하게 교란을 제거하라.

나는 또 말하는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 최근에 많은 수련생은 일부 수련생이 사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사실 이런 것을 나는 모두 양해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하는 바, 구세력의 각종 요소와 우주가 정법을 아직 끝마치지 않은 그런 생명, 그것들은 양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은 이 한 점을 틀어쥐고 그것들이 하려고 하는 짓을 할 것이다. 내가 그 해 대륙에서 법을 전한 그 한 기간 시간에 이 방면의 일이 아주 많았는데, 일단 어떤 사람이 사부에 대해 존경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꼭 그를 밀어 반면으로 가게 했다. 생명은 모두 법을 위해 온 것으로, 하나는 바른 일면(正面)의 작용을 일으키고, 하나는 부면(負面)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부면의 작용을 일으키는 생명은 최후에 모두

소멸하게 되는바, 그러므로 수련생이 이러한 것을 보고는 기어코 그 사람을 대립 면으로 밀고 가, 그때부터 그로 하여금 있는 힘껏 나쁜 일을 하게 한다.

아주 위험하다. 그러므로 일단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면, 구세력은 즉시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치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의 거대한 업력은 그의 사부가 제거해 주었고 그를 대신하여 감당했으며, 이미 지옥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의 그런 생명을 건져 내어 신이 되게 하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일체를 정말 그에게 주었다. 그것들은, 그가 감히 그의 사부에 대하여 이렇게 한다고 여겨, 그를 대립 면으로 밀고가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최후에는 휘멸되게 한다.

물론 나는 구세력의 이런 배치를 승인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가급적 수련생 스스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수련생들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난(難)은 당신이 해탈해 나오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나는 갑자기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주의해야 하는바, 바르게 가지 않는 어떠한 길도 모두 위험한 것이고 모두 험난한 것이다.

제자: 저는 7개월 전에야 법을 얻었는데, 저도 정법제자 입니까? 법정인간 시기일 때 저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부: 나는 당신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집착이 있다. 당신이 신수련생이든 노수련생이든, 당신이 어떤 제자에 속하든지, 당신이 오늘날 대법수련의 문에 걸어 들어왔고, 당신이 진정한 수련의 때문에 들어왔다면, 아무것도 집착하지 마라. 사람 마음의 일념이라도 모두 제고를 저애하는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수련 중에는 “유심수련, 무심득공(有心修煉, 無心得功)”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은 수련할 수 있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수련이 빠르고, 제고가 빠르며, 마난(魔難)이 적다. 오직 집착이 있기만 하면, 수련은 더디게 된다.

자신이 정법시기 제자인지 아니면 장래의 제자인지 상관하지 말며, 당신은 이미 수련 중으로 걸어왔고, 당신은 이미 무수한 중생이 부러워하는 생명이 되었으므로, 당신은 당신의 길만 잘 걸어가라. 한 생명이 우주 중에서 무엇을 했던지 모두 보응이 있을 것이며, 좋은 것을 해도 보응이 있고, 나쁜 것을 해도 보응이 있는데, 수련도 물론 보응이 있는바, 과위를 실증한 과보(果報)가 있으며, 이것은 우주 중의 절대적인 이치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어떠한지도 상관하지 말며, 할 수 있고 수련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곧 수련하라.

제자: 스승님, ‘선해(善解)’에 대하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

사부: 선해라, 나는 우주의 생명이 정법 중에서 법에 동  
화되는 한 가지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생명은  
선해할 가치가 없는데,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그  
렇게 처리한다. 정법에 죄를 범한 어떤 생명은, 더욱이 선해할  
수 없으며, 정법이 한번 지나가는 중에 청리해 버린다. 선해  
하는 생명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를 동화시켜 준다. 그러  
나 대법제자는 또 이 선해를 초과한다. 왜냐하면, 대법제자  
는 주동적으로 수련하고 있고, 자신이 미래를 향해 수련하  
고 있기에 선해보다 더 진귀하다.

제자: 프랑스 전체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을 드립니다.  
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프랑스에는 정신이 정상이 아닌 수련생이 있는데,  
그가 이전에 중국 관광객에게 자료를 배포할 때 자신을 통

제하지 못하여, 수많은 중국 관광객 앞에서 크게 떠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대사관 앞에서 발정념을 할 때 함부로 움직이고, 또 이미 중국대사관 건물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부: 이런 일은,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그것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이 수련생으로 말하면, 대법제자로서 그렇게 해서 는 안 되며, 우리는 다만 선념에 입각하여 중생을 구도할 뿐인바, 이지적이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게 된다.

어떤 수련생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수련생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이므로, 여러분은 서로 협조해야 하며, 유사한 일이 다시 나타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 만약 정말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수련생에게 권유하여 혼자 집에서 연공 하도록 하라. 사부는 마찬가지로 책임질 것이므로, 나올 필요가 없다. 만약 정신병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자: 우주의 일체는 모두 정수(定數)가 있으며, 일부 생명은 멸망하기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한 점을

결정하였습니까?

사부: 우주의 일체에 모두 정수가 있음은, 우주의 정체(整體)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구(舊) 법리는 그 성주괴멸(成住壞滅)의 정수(定數)를 정하였고, 이것이 그 구법(舊法)의 지혜의 극한이다. 비록 우주에는 그의 이러한 정수가 있지만, 구체생명의 근본이 비록 그와 역사적 관계가 있지만, 어느 생명인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그에게 얼마만큼의 업력이 있으면, 그는 갚아야 하는데, 그가 업력이 크면 소멸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모두 생명 자신의 일이며, 이 생명 자신이 어느 일보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의 행위를 통하여 이 생명의 우주 중에서의 다음 일보, 다음 일보, 또 다음 일보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공간의 시간환경을 떠나서, 다른 시간 환경 속에서 그가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 역시 그의 오늘날의 상태에 따라 그 일보까지 연속된 것이다. 만약 그의 지금의 상태가 갑자기 변하였다면, 그다음 일보의 상태 역시 변하므로, 이것은 불안정한 것이다. 우주의 성주괴(成住壞)의 총체적인 정수는 안정된 것이다.



제자: 대법제자는 연분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아주 큰데, 그 연분의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부: 연(緣)을 나는 『전법륜』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전에 여러 차례 설법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대법제자의 연분은 더욱이 말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대법제자에게는 세 가지 정황이 있다. 내가 볼 때, 반복하지 말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 나는 잠시 이런 문제들을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웃으심) 나의 이전의 설법을 찾아서 한번 보라.

제자: 아주 많은 동수(同修)들이 사람의 이 한 층의 법을 원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사부: 사람의 이 한 층을 원용한다? 이 말은 맞지 않다. 만약 잘하지 못하였으면, 그것은 수련문제로서 이런 원용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자: 선천 근기 혹은 근기의 국한(局限)을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사부: 수련함에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당신은 근기가 어떠한지 상관하지 말라, 오늘날 한 생명이 대법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음은 근기가 낮지 않은

것이다. 세인들을 보라, 전 세계에 70억 명이 있는데, 정법 시기의 대법제자는 몇 사람인가? 당신은 오히려 그 속의 한 사람으로서, 또 무슨 근거를 말하는가? (박수)

제자: 정체(整體)에서, 만약 어떤 항목의 협조인의 관념이 중하면, 어떻게 진일보로 협력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부: 대법제자 매 사람이 모두 수련하고 있고, 매 사람이 또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매 사람 역시 속인 마음이 다 있으므로 비로소 수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속인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는데, 모순이 있고, 이의가 있다고 여겨 수련생들과 협력하지 않으려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상태에서 걸어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하며, 아울러 사람마다 가끔 역시 이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며, 서로 도와주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공동으로 대법제자로서 법을 실증하는 일을 잘하는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

제자: 대법제자가 없는 그런 국가는 장래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멀고 먼 국가를 향하여 어떻게 흥법하고 진상을 알려야 합니까?

사부: 대법제자는 바로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당신들이 만약 능력이 있다면, 당신들이 가서 할 수 있으며, 대법제자가 없는 곳에 당신들이 가서 흥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難度)이 너무 큰 것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중국 사악한 깡패집단과 너무 가까운 곳에는, 당신들은 현재 잠시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 일보에 또 다음 일보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제자: 만약 미래의 중생이 다시 패괴(敗壞)된다면, 또 정법이 필요합니까?

사부: 아마도 이는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만약 이 우주의 중생이 더 패괴(敗壞)되어 내려간다면 정법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법의 출현, 이 일의 시작이, 마침 우주중생과 인류가 모두 안 될 때이고 도태되어야 할 때이지만, 구원을 바랄 수도 없을 지경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바로 이때에 법을 전한 것이다. 만약 정말로 지옥에 내려갈 생명처럼 그렇게 나쁘다면, 물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나는 또한 구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더는 제도할 가치가 없다.

제자: 만약 로켓이 9대 행성 범위 밖으로 날아 나간다면,

그것은 삼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부: 그것은 단지 분자입자 한 층으로 구성된 범위일 뿐, 이 삼계의 범위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몹시 어렵다. 내가 현재 여러분에게, 삼계가 얼마나 크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의 감각과 시각으로 동일한 층의 입자 중의 관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과 사람이 우주를 볼 때 최대의 다른 점은, 신은 이 한 층의 입자의 구조에서 보지 않고, 그 이하의 각 층 입자와 이상의 각 층 입자에서 동시에 우주구조의 조합상(組合上)의 전 방위에서 입체적으로 보는 바, 그는 물체의 우주의 부동한 층차 중에서의 총체적인 구성표현을 볼 수 있고, 근본에서부터 무슨 모양인가를 본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분자 이 한 층의 입자로 구성된 이 세계, 단지 이 한 층 입자로 구성된 이 일체만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주는 단지 이 한 층의 입자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진상을 볼 수 없고, 사람은 오직 이 한 층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종류의 요소의 간격·억제와 사람의 눈 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인데,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이러한 일종의 가상을 조성한 것으로,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진상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바로 이 한 층의 입자로 구성된 것조차 사람으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바, 바로 사람에게 이러한 일종의

눈을 만들어 주어 우주에 대한 인식을 국한하고, 그 가운데서 이러한 문화를 만든 것으로, 일체는 모두 목적 있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은 그 적외선·자외선 그리고 기타 볼 수 없는 빛,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의 과학계기로 가히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오히려 볼 수 없다. 즉, 인간 세상 이 한 층 속의 것마저도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다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람이 어떠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의로 정한 것으로, 사람의 인식을 이 상태 속에 고정했다. 사실은 또 절대적인 고정이 아니라 초월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것으로, 수련으로 돌파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돌파하고 우주의 진상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수련인의 층차를 보아야 한다. 반대로, 사람이 더 물질적일수록 더욱 이 미혹 속에 빠지고, 더 물질화될수록 사람의 사상인식도 더 이 ‘현실’ 속에 빠지며 사람은 더욱더 이 ‘현실’ 속에 있게 된다.

삼계의 더 큰 변두리는 소우주와 같이 크다. 삼계의 미시적인 변두리는, 사실 미시적인 데서 볼 때, 지척에 있어도 멀다고 나는 말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시적인 입자가 그 미시적인 입자보다 한 층 더 큰 입자를 구성하였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하여 부동한 층차의 입자 모두 다 아래의 한층 작은 입자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계의 변두리를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고, 바로 일체 속에 있으며, 일체 물질의 미시 중에 있는 것으로, 현대인의 사상으로 인식하면 거리가 없는데, 당신은 그것의 거리를 거의 계산해 낼 수 없다. 그러나 삼계를 구성하는 부동한 층차의 입자에는 도리어 부동한 층차의 범위가 있다. 다시 말하면 평면에서 부동한 층차를 볼 때 역시 부동한 층차의 변두리 거리(距離)가 있다. 그러나 우주, 그것은 또 한 개의 상당히 복잡한 체(體)인바, 우리가 말하는 삼계는 장래에 정법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어서 정한 한 개의 범위이다. 그러나 삼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똑같은 입자 상태로 연결된 또 더 광대한 공간이 있는데, 아주 많은 최후의 고층 신은 또 모두 그것을 가장 낮은 층차라고 부른다. 우리가 가리키는 삼계는 이 특정된 범위이다. 또한, 삼계와 동등한 입자로 구성된 기타 서로 이어진 공간, 그것의 범위는 비할 바 없이 거대하다.

제자: 무엇 때문에 대법제자는 당신을 주불(主佛)이라고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더 높고 더 먼 곳에서 왔습니까?

사부: (웃으심), 사실 나는 명칭이 없다. 나는 단지 한편의 경문에서 ‘주불의 자비’라는 한 마디를 적었더니, 수련생은 사부님이 주불이 아니신가 하고 추측하였다. 사실 무엇이라고 불리든 모두 정확하지 않은바, 매 사람의 생명마다 우주 중에 모두 하나의 내원(來源)한 곳이 있고, 동시에 더 멀고도 먼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가장 낮은 층차의 그런 생명을 포함한다. 바로 지상의 풀 그것들도 모두 하나의 내원한 곳과 더욱 먼 요소가 있다. 부동한 역사시기에 부동한 식물이 있고, 긴긴 우주역사 중에서, 성구(星球)와 입자는 끊임없이 해체되고, 그다음 재생되고 해체되고 재생되며, 끊임없이 갱신하는데, 우주 중의 수많은 먼지는 아마도 상당히 멀고도 먼 요소가 해체된 생명일 수도 있다. 바다에 떨어진 흙 중 많은 것은 아마도 상당히 멀고 먼 물질의 것일 수 있다. 아울러 그 풀은 이 흙 속에서 물질을 흡수하는데, 아마 그 풀도 부동한 멀고 먼 요소를 지녔을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표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떠한 한 개의 물체도 모두 생명이 있는데, 오로지 그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성경』 중에서 여호와와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사실 여호와가 만든 것은 백인 중의 한 종(種)이다. 모든 백인이 아니다. 백인 역시

모두 한 가지 인종이 아닌 것으로 여러 몇몇 신들이 만들었다. 황인종도 몇몇 신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기타의 사람, 예를 들어 인도사람, 그리고 고대 이집트 사람도 모두 부동한 신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신이 자신의 모습을 모방하여 사람을 만들었다고 여기는데, 사실 그 신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바, 그가 만들어낸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의 가장 낮은 일부분·최하 한 층의 입자에 불과하다. 명백히 말하면 바로 신의 발아래의 한 개 입자이며, 세포라고 불러도 괜찮다. 나는 전에 설법에서 당신들에게 생명, 사람·동식물을 포함하여 매 한 개의 세포는 모두 주체의 형상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다.

그렇다면 당초에 만들어낸 사람은 그의 元神(웬선)과 생명의 일체마저 모두 삼계 내의 물질요소로 조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한 사람을 만든 신은 물론 자신의 사람을 책임지려고 한다. 줄곧 근대에 이르러 대법을 전할 시기가 거의 다가오자, 인피(人皮) 속의 아주 많은 元神(웬선)은 고층에서 내려온 생명이며, 더는 원래 사람의 그 元神(웬선)이 아니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사람 표면의 한층 입자로 구성된 일체를 인피라고 부르며, 사람의 뼈·내장과 표면 피부를 포함한다. 사람이 표면의 인피는 노화로 말미암아 죽지만, 이 표피가 일생 중에서 받아들



인 아주 많은 것을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데, 사람은 긴긴 세월 속에서 한 세대 한 세대로서, 사람은 신이 사람에게 만들어 준 문화 내포를 연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의 이성(理性)상에서는 모르는 것이지만, 내포 속에는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에 이르러, 법을 위하여 온 수많은 중생이 사람으로 전생할 때, 원래 신이 만든 사람의 그 元神(웬선)은 저승(陰間)에 머물러 있게 하였고, 고층 삼계 밖에서 온 신은 사람으로 전생하여 이 옷(인피)을 입었는바,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 신이 만든 인피를 다른 신이 입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설명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다른 신은 사람을 만든 이 신보다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고, 아마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으며, 물론 그보다 낮은 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동등한 층차의 이가 와서 그가 만든 이 사람을 주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이 원래 사람을 만든 신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늘 지금의 사람은 모두 내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사람 중에서 당초에 신이 만든 그 元神(웬선)은 몇몇 안 된다. 누가 이 미혹한 세계에 들어갔든지 간에, 접촉한 눈으로 본 일체는 바로 이러한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렇게 이 세계를 본다. 그렇다면 이 미혹한 사회 속

에서 마찬가지로 업을 빚으며, 근대 인류는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회 속에 더욱 미혹되게 하는 문화를 만든즉슨, 이렇게 한 개의 아주 물질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배양해 냈다. 사람이 이 인식을 초월하려면 무척 어렵고, 사람이 이 일체 이위를 인식하려면, 오로지 수련해야 비로소 해낼 수 있다.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부동한 신이 부동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몇 천 년 동안, 각종 종교는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전파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만든 신은 아주 상심하게 되었는데, 게다가 사람이 믿는 그 신은 또 다른 신이 만든 사람을 제도할 수 없었다. 또 아주 많은 민족은 자기의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유사 이래 이러한 현상이 아주 많았고, 이 때문에 사람을 만든 신은 자신이 만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많은 민족은 뿌리가 없는 사람·책임지는 신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회의 변란·이지의 상실·신에 대한 불경은 대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왔다. 이러한 민족과 개인은 모두 아주 빈곤하다.

사부가 왜 더 높고 더 멀리서 왔다고 하는가에 대해 말하자면, 사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대법제자 역시

모두 더 높고 더 멀리서 왔을 것이다. (박수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짐) 단지 내가 온 것이 좀 더 멀 뿐이며,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정법 속에서 나는 누구든지 제도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하자면, 우주의 증생을 놓고 말한다면, 내가 온 높고 낮음은 이미 긴요한 것이 아니며, 내가 최고 최후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비로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은 내가 이 대법을 전하기 위해 왔으며, 이 대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 된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변호사에게 체계적으로 진상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알아,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변호사를 불신임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인류사회는 인류 자신에 의하여 붕괴되어 공간이 아주 작아졌으며, 사람의 지혜는 국한성이 있으며, 수많은 틀이 사람을 가두어 버렸다. 아주 많은 일은 행하기가 아주 어려워졌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주 어려워졌다. 지혜롭게 이런 것을 대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한다면, 진상을 알리는 그것은 물론 문제가 없다. 당신들이 본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행하라.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부딪힌 어떠한 일이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

서 날날이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말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부딪힌 문제는 또 당신들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것 역시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고 있으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제자: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공법시범을 하는데, 진상을 똑똑히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부: 공법시범은 일정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신들이 한 어떤 일이든지 모두 일정한 바른 일면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진상을 알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공법만 한다면, 사람에게 있는 풀지 못한 수많은 사상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제자: 중국 윈난 시쌍판나(雲南西雙版納), 베이징 칭화 대학(北京清華大學), 간수 짜위관(甘肅嘉峪關), 허베이(河北), 광둥(廣東), 뉴질랜드, 페루, 텐진(天津), 캐나다 몬트리올, 창춘시(長春市), 베이징(北京)시, 선양(瀋陽), 하얼빈, 스촨 리산(四川樂山), 어메이산(峨眉山), 광저우(廣州), 정저우(鄭州), 무단장(牡丹江) 이상 지역의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을 올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박수)

제자: 만약 동수에게 특무(特務)로 오인 받았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나는 이 특무에 대해 좀 말해 보겠다. (웃으심) (웃사람들 웃음). 사실은, 당신들은 사부가 다른 한 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물론 구세력(舊勢力)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은 대법제자를 고향하려고 겨냥한 것인데, 사실 내가 말한다면 법에 대한 치욕이자, 인류에 대한 수치이며, 법에 대한 불경이고, 정법에 대한 교란이어서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이 안 되어 비로소 정법 하는 것이며, 인류에게는 필경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업종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사람들을 선발하여 특무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크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 하며, 또한 수많은 사람이 피동적으로 한 일이고, 또 어떤 사람 누군가가 총명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 선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 사람의 직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무를 하는 사람들 속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있다. 인류사회의 직무가 다르므로, 이 사람의 좋고

나뻘을 말할 수 없으며, 이 생명은 구도할 수 있다거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법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말하였다. 나는 역시 이렇게 하였는바, 직업이나 사회계층으로 선을 긋지 않았으며,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모두 구도하였다. 나의 문은 열려 있고, 전부 열려 있으며, 열려서 문이 없는데, 당신이 오로지 수련하겠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 나는 누구든지 제도하는 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는 사람 자신의 마음이며, 법을 얻고 얻지 않고는 개인의 일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인류가 직업을 선택하면서 자신을 파악하기 몹시 어렵기 때문인데, 일생 중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듯이 어디 그렇게 쉬운 것이 있는가? 몹시 어려운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보았으며, 사람은 또한 모두 법을 위하여 왔는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모두 당신을 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견정하게 수련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며, 당신이 수련하고 수련하지 않고는 역시 당신 개인의 문제이다.

나의 이 말, 나의 이 방법은 이미 앞서 했지만, 이 몇 년 동안 우리 수많은 수련생은 아직도 사부가 말한 이 말의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문을 모두 열어 놓아, 어떤 직업계층의 사람이든 모두 그더러 들어오게 하였는데, 여러분은 왜 자신이 인위적으로 기어코 줄을 긋고, 기어코 선을 긋는가? (박수) 사람이 수련하지, 신이 수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수련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서는 사람 마음이 있으며, 사람 마음에는 직업적 습관이 있으며, 직업이 조성한 집착과 양성된 습관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모두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한 사람이 수련을 잘하지 못하였을 때 그 일 중에서 조성된 습관적인 집착이 반영되어 나올 수 있다. 그럼 물론 간첩이나 특무를 할 때의 그의 습관도 반영되어 나오며 심지어 관을 넘지 못할 때, 일을 잘못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대법제자가 박해당하는 중에서 그가 어느 한 관을 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흐리멍덩하여 그는 가서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할 때, 이 사람이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 제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그의 일시적인 것으로는 알 수 없다. 남들의 착오를 허용해야 하고, 그가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법의 위대한 점이다. (박수)

나는 과거에, 누구도 대법을 파괴할 수 없고, 오로지 대법

제자가 잘하지 못하면 대법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 이 박해 속에서, 그 사악한 깡패집단은 대법제자를 이용하여 대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 내가 말한 뜻의 전제는 대법제자가 진정으로 수련하고 있지만, 수련 중에서 법리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투철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걸어 조성된 좋지 못한 영향은, 사실 또 사람 여기에만 영향을 미칠 뿐, 대법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해 속에서 반면으로 나아간 이들은 이미 대법제자가 아니지만, 돌아올 수 있는 이는 별도로 취급한다. 대법제자가 아니라면 그럼 근본적으로 박해하는 사악의 한 무리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은 고의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고의적으로 파괴를 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데, 이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법을 파괴하지 못했고, 오로지 대법제자로 하여금 더욱더 이지적이고, 더욱더 생각이 바르며, 더욱더 청성(淸醒)하고 명백해지도록 할 뿐이다. 이번 박해의 결과는 바로 이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성숙되지 않았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대법제자 자신이 잘하지 못함으로써 세간에서 좋지 못한 작용과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어느 대법제자가 속인 마음이 있어, 잘하지 못하고, 이전에 특무를 하였거



나 혹은 어느 수련생이 일시적으로 넘지 못함으로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밀어내거나, 혹은 다른 눈으로 대하여, 정말로 그의 천만 년의 기원이 훼손되어, 반면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박수)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 만약 매 한 명의 대법제자가 모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들이 생각해 보라, 이 자비의 힘에, 그 좋지 못한 요소가 또 머무를 곳이 있겠는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전문적인 그 특무는 들어오지 못한다. 모두 99년 이전에 이런 직업을 가졌던 수련생으로서 잘 수련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 사악에 일시 타협한 수련생이 잘하지 못하여 비로소 표현된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법을 파괴하라고 하여도 그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일시적으로 흐리멍덩하고, 잘하지 못하고 관을 넘지 못하였을 때, 길을 잘못 걸은 것이다. 또 어떤 대법제자들은 자신의 고만한 것들에 집착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깡패 특무기구에 좀 대처하고자 하였다. 사실 당신이 누구에게 정말로 대법을 파괴하라고 해도 모두 불가능하다.

바로 일부 수련생들에게 아직도 사람의 집착과 아직 잘하

지 못한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특무가 치고 들어 오고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수련이다. 그들은 수련생을 이용하여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이른바 정보를 제공하며, 목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고, 남을 속이고 있다. 그런 특무 기관은 法輪功(파룬궁)이 무슨 비밀이 없음을 아주 잘 알고 있고, 파룬궁은 모두 좋은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으며, 바로 이번 박해를 반대하고 있음을 그들 자신도 모두 알고 있다. 깡패 수단 속에서 성세를 만들고 형세를 만드는데, 중국은 운동을 펼치면서 습관이 되었는데, 그들은 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 줄 아는데, 일종 무슨 성세를 조성하여, 사람 마음을 교란하려고 하였다. 수련자에게 소용이 있겠는가? 이 몇 년이 지나면서 대법제자는 갈수록 견정해지고, 이지적으로 되지 않았는가? (박수) 누가 너에게 집을 먹는단 말인가? 없다. 그렇다면 사악한 박해에서, 중국 대륙에서 그 대법제자 중에 누가 너에게 집을 먹는단 말인가? 물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그것 역시 구세력이 고의적으로 배치하여 들어오게 한 것이다. 나는 중생은 모두 법을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모두 바른 일면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구세력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

금 반작용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대법제자들이 단련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은 악인의 무슨 재간이 아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여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사람은 짐착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무엇을 했다면 오히려 모두 갇아야 한다. 이는 틀림없는 것이다. (박수)

그러나 나는 또한 집착심 있는 수련생의 틈을 타는 특무가 정말로 아직도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수련생이 잘 하지 못하고 너무 집착하여 조성된 것이다. 머리가 청성하지 못한 일부 수련생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조금 전에 나는 바른 일면으로 이 법을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또한 알고 있는바, 사부가 거듭 기회를 주는 동시에, 또 사부가 거듭 베푸는 자비를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는 몇몇 사람이, 줄곧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고 대법제자를 배신하는, 특무 수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 또 한 번 사악에 이른바 정보를 제공하는데, 행위상에서 대법에 가져다준 부정적 영향은 신의 눈에서 볼 때 이미 갇을 길이 없다. 정법에 대한 교란에 참여한 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이번 박해에 참여한 것으로서, 후과는 대법제자를 박해한 중국의 그 사악한 깡패집단과 똑같다. 지금 나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미 할 말이 없으며,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에는 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까지 말하자

조금 전에 한 신이 말하기를, 보아하니 그들은 후사를 준비할 기회밖에 없구나 하였다.

제자: 당신께서는 세 가지 일을 잘하면, 일체가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부딪히는 일체 집착과 모순이 모두 선해 되는 것을 포함합니까? 저는 진심으로 사부님의 개시(開示)를 바랍니다.

사부님: (웃으심) 한 사람이, 수련 속에서 당신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련을 논할 수 없다. 무엇을 수련이라고 하는가? 수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속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다. 속인 속에 있지 않을 때, 속인의 각종 모순과 집착, 각종 요소가 당신에게 여전히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이 그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가, 수련해낼 수 있는가, 당신이 정진할 수 있는가, 당신 수련의 빠름과 느림, 이것은 모두 당신 개인의 문제이다. 나, 이 사부로서 당신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책임지는데, 그러나 당신이 정진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은 여전히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하나의 신이 속인 속의 각종 집착에 이끌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며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달렸다. 당신이 나는 이 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수련하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진수(眞修)가 아니다. 수련은 어떠한 조건도 없다.

제자: 대법제자가 조성한 그 한 층의 우주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인데, 사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부: 나는 당신들에게 길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지금 모두 사람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웃으심) 사람의 일념은 능력이 없으므로, 내보낸 것은 순간 풍선 같으며 작디작아, 그것은 금방 흩어진다. 대법제자가 내보낸 것은 아주 강렬한바, 층차가 높을수록 생각해 낸 것이 더 강하고, 더 크며, 시간이 더 길게 지속한다. 하나의 거대한 신, 그의 일념이 천체우주를 생성할 수 있다. 사실 또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 법은 원용한 것이며, 과거 우주의 불건전한 요소를 이번에 정법 중에서 모두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그가 하나의 원용한 법이라면, 성주괴(成住壞) 우주의 근본 특성마저 변화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의 사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개념이 아니다.

제자: 최근 동수들이 자주 전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교류하고 법 공부하며, 심지어 극력 보급합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교류하고 법 공부

할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사부: 안 되는바, 꼬마 제자 이외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또한 여러분이 아주 바쁠 때 사용함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습관화되면 안 되며 이는 내가 당신들에게 남겨 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단체로 법 공부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법 공부하고 문제를 탐구하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 당신들이 바쁠 때 한번 이용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며 또한 자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자: 제자는 물질의 불순(不純)과 변이(變異)의 차이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사부님께서 대답해주세요.

사부: 물질의 불순과 변이가 바로 구(舊) 우주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이며, 구(舊) 우주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성주괴멸은 그 당시 법의 지혜의 극한이며, 부동한 국부에 대한 주기적인 정화방법이며, 총체적으로 그 일보로 나아가면 바로 완결된다. 물질의 불순과 변이를 인류사회 여기에서 보면, 현대과학이 가져다준 공기·토양·금속·물(水)과 각종 원소의 불순을 인류는 해결할 수 없다. 인류 사상의 변이는 신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인류가 아니다. 우주의 일체는 순환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고층생명에 의해 추출

된 후 고층 공간의 요소와 생명의 불순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한 것이다. 나의 이전의 몇 차례 설법을 한번 보라.

제자: 명후이왕은 진상을 밝히는 중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외 수련생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합니까?

사부: 명후이왕이 진상을 밝히는 중에서의 작용은 대신할 수 없으며, 그곳은 우리가 박해 진상과 대법,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형세를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창구이다. 대법제자의 일이라, 여러분은 모두 잘 협력해야 한다.

제자: 근래, 저는 어떤 수련생이 자신이 이미 원만하였다고 자칭하며, 다른 법문(法門)으로 바꾸어서 수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가 사오(邪悟)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망상한 것입니까?

사부: 나는 그가 열이 나서 그런다고 말한다. (못 사람이 웃음) 발열하여 흐리멍덩해졌다. 사실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미 아주 위험하다. 이지와 정념이 청성(清醒)하지 못한 사람은 신이 가장 멸시하는 생명이다.

제자: 마스크에 사부님 사진을 신는 것은 적합합니까?

사부: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웃으심) (박수)

제자: 사부님께서 『북미 순회 설법』 중에서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부: 무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는가?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 현재 중생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의 수수께끼이며, 장래에 누구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일체 능력이 있으며, 나는 일체에 얽매이지 않으며, 나를 뭐라고 불러도 다 정확하지 않은바, 부동한 중생이 장래에 나를 보게 되면 모두 부동한 그들 민족의 형상인데, 일체는 나로 이루어진 것이나, 나는 또 일체 중에 있지 않는데, 바로 이런 개념이다. (웃사람 웃음 박수)

제자: 현재 세계각지에서 나타난 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류의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증은, 사존님께 여쭙는데, 이 현상은 정법 노정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부: 인류의 업력이 너무나 커져서,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각 방면에서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서, 업력이 갈수록 큰데다, 대법에 대한 태도 때문인데 아주 많은 원인은 인류 자신이 조성한 것이다. 이것은 보기에 정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모두 대법을 둘러싸고 움직이며, 어떠한 일이든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며, 역시 이런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깨닫게 한다.

제자: 무엇 때문에 수련생 중에서 특무 일을 하는 이들은 지금까지도 청성(淸醒)하지 못합니까? 면전에서 그의 신분을 폭로하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부: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럼 그가 청성(淸醒)하도록 하는데, 폭로했으면 폭로한 것이다.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지만, 구할 수 없는 것도 그 자신의 선택이다.

제자: 일부 대법제자들은 인터넷에 대법의 신기한 글들을 올리는데, 일부 네티즌들로 하여금 대법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사부: 만약 좀 엄숙하게 말하자면, 이 방면의 일은 문제가 없는 것인바, 무슨 오해가 있을까 봐 고려하지 말며, 또한 비정상적으로 하지도 말라. 정정당당하게 이지적으로 법

을 실증하면, 그럼 문제가 없다. 필경 대법제자는 수련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속인 사회의 정치 단체가 아니며, 수련단체인바, 우리는 신(神)을 수련하는 것으로, 그럼 반드시 신의 행적(神跡)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자: 당신께서는 색심(色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만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제자가 색심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여쭙는 것은 원만의 단위는 무엇이며, 단위는 입자로 계산합니까?

사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는데, 제멋대로 망상한 것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원만과 단위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법제자들이여, 색욕은 수련인에 대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死關)이라고 나는 벌써 말하였는데, 속인의 이 정에 너무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이끌린 것이다. 요만한 일마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데, 보아하니 구세력이 애당초 이런 이들을 대륙의 감옥으로 배치했어야만 비로소 고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가? 그런 엄혹(嚴酷)한 환경에서 당신은 또 어떡할까. 너무 안일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구실을 찾는 그런 이들은 모두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무슨 특별한 배치를 한 적이 없다.

제자: 발정념을 할 때 시간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사부: 원래 명후이왕에서 정체적으로 전 세계 대법제자가 시간을 정해 발정념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좋은바, 여러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기타 구체적인 것은 부동한 지역에 부동한 정황에 따라 할 수 있다.

제자: 매번 사부님을 뵈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모두 연기나 구름같이 사라집니다. 사부님이 계시며, 법이 있는데, 풀 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기간 시간과 순간이 정말로 기쁩니다.

사부: 정념이 강하기만 하면, 사실 어떤 문제이든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정념이 강하기만 하면, 또 무엇이든 다 명백해진다. 흐리멍덩함이 나타나는 것은 늘 자신 마음속에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할 때인데, 마음속이 불편하여 흐리멍덩해진다.

제자: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법제자음악회에 마술공연을 넣으면, 우리가 법을 실증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요?

사부: 이걸 내가 생각하기에 별문제가 없다. 내가 생각하

기에 문예형식은 바로 문예형식이며, 즐겨 듣고 보는, 여러 사람이 보기를 원하고, 또 저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

제자: 대법은 기제(機制)상에서 미래 생명이 긴긴 우주 세월을 거쳐도 집착과 사(私)가 생기지 않도록 보증해 주고 있으므로, 우주는 원용불멸(圓容不滅)합니다.

사부: 이런 이치가 아니고, 이런 인식이 아니며, 또한 이런 개념이 아니다. 대법은 원용한 것이고, 우주 특성의 근본은 무사(無私)한 것이며, 한 생명이 그 경지로 수련했을 때 바로 그러하다. 법은 중생들에게 생존의 보장을 제공해주었고, 법은 중생에게 우주의 기제와 변영을 육성(造就)해 주었으며, 법은 또한 중생과 만사만물 천지인신(天地人神)을 육성했다. 그러나 생명의 행위(所爲)는 일정한 정도에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

제자: 후베이 이창(湖北宜昌), 거저우바(葛洲壩), 삼샤(三峽), 뮈버른(墨爾本), 하이난(海南), 지린 농안(吉林農安), 카이안(開安), 지린(吉林)시, 산둥 허쩌(山東荷澤), 헤이룽장(黑龍江), 베이징 텐탄 베이먼(北京天壇北門), 쓰촨(四川), 칭두 쑤양(成都資陽) 대법제자가 사부

님에게 문안 올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당신의 책 중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잘 대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德(덕)을 주는데, 당신은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뻐한다면 자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사부: (뭇 사람들이 웃음) 자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익과 정 앞에서 염(念)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수련인, 대법제자가 비로소 해낼 수 있다.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에게 德(덕)을 준다는 것을 말하자면, 그것은 우주의 특성이 조성한 것이지, 기뻐한다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은 사람은 고통 중에서 원망도 없고 증오도 없이, 한 번 웃고 은혜와 원한(恩怨)을 푼다면, 이것이 자비가 아닌가? 사람의 각도에서 말한다면, 어떠한 사람이든 이것이 자비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때렸는데도, 당신은 오히려 그에게 원망도 없이 한 번 웃는다. 물론 수련인은 속인이 어떤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웃을 수 없는데, (뭇 사람들이 웃음) 마음속으로 아주 탄연 하다면, 누구든 모두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당신에게 나쁜 일을 하려 할 때, 당신은 그가

德(덕)를 잃는 것을 면하도록 선을 권유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는 듣지 않고, 그가 여전히 악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럼 그가 악을 행한 후과에는 보응(報應)이 있을 것이다. 바로 중국 노동교양소의 그런 악경(惡警)·나쁜 사람처럼, 그것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며, 권고해도 듣지 않는데, 방법이 없다. 당신이 기어코 때리려고 하고, 아무리 제지해도 당신이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당신이 때렸다면, 당신은 때가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은 대법제자가 자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어떠한 하나의 공간이든 모두 그것의 그 공간의 법리가 있다. 이치가 비록 승화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하나의 공간 중에, 생명이 그 공간의 이치를 준수한다면, 그럼 바로 그 공간의 좋은 생명이다. 당신이 그 이치를 초월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층 생명을 초월한 것이다. 누구든 맞으면 다 좋아하지 않고, 사람은 고생을 하게 되면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의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잘 대하지 않아도 나는 다 좋아한다는 속인은 없고, 오직 수련인 만이 비로소 해낼 수 있는데, 이는 속인보다 경지가 높은 것이다. 자신의 신체가 고통을 감당했고, 心性(썬썬) 상에서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수련자의 자비이다. 그가 德(덕)를 주는 것을 말하자면, 그것은 대법제자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또

한 그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주의 기제가 그것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고, 우주의 특성이 일으킨 작용이다. 내 이 사부로서 법리를 증생에게 말해 주었다.

제자: 임신한 제자는 정혈지기(精血之氣)가 없는데 어떻게 명을 닦(修命)습니까?

사부: 누가 임신한 제자는 정혈지기가 없다고 말했는가? 대법을 수련하는 그것은 어떠한 일이든 모두 교란할 수 없으며, 반대로 영아에 대하여 좋은 점이 있다.

제자: 저의 남편 모모(某某)는 막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나 그 본인은 현재 아직 중국대륙에 있습니다. 그는 내가 법회에 참석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는, 저보고 사존님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부: 고맙다. (박수) 중국대륙의 어떠한 한 대법제자이든, 나, 이 사부가 다 그(그녀)를 빠트리지 않을 것인바, 반면으로 나간 구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을 제외하고, (박수) 나는 그(그녀)들을 생각하고 있다.

제자: 최근 시간이 더 빨리 운행(運轉)되는 것이 느껴짐

니다. 삼계 내의 시간이 이미 교체되었습니까?

사부: 시간이 아주 빠르다. 속인의 이 공간은 아직 법정 인간(法正人間) 세상 이전에, 사람 여기의 시간은 아직 완전히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 구(舊) 우주의 체계 중에서, 고층생명의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은 무수한 중생의 편차를 조성합니다. 새로운 우주 중에서 이런 종류의 현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새로운 우주 기제는 더욱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사부: 아직 이런 인식이 아닌바, 새로운 우주도 그러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정법과 수련은 모두 반드시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는가? 동화(同化)된 이든 아니면 정법 중에서 법에 바르게 잡힌 이든, 모두 절대적으로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대법제자들이여, 만약 매우 높은 층차로 수련되어, 매우 높은 층차의 천체를 주재(主宰)하고 있다면, 당신의 일념은 확실히 당신의 천체 내에서 무소불능(無所不能)인데, 그것은 틀림없는 것인바, 그러므로 대법제자는 반드시 잘 수련해야 하고 바르게 수련해야 한다. 물론, 당신 자신들이 수련하는 것이 한 방면인 것을 제외하고도, 정법(正法) 중에서 사부도 당신들을 도와 가장 근본적으로 불순(不純)한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반드시 매우



바른 것이다.

인간세상에서, 이 한 기간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설령 몇 만 년이 된다고 해도 사실 개공(開功)할 때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꿈같이 느껴지며, 꿈처럼 마음이 담담하고, 점점 마치 잊어버린 것 같은데, 더는 사람의 사유구조가 없으며 사람의 사상 속에 빠져서 인류가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사상이 없고, 신의 사유구조이다. 나는 과거에 말한 적이 있는바, 여래불은 우마(牛馬)의 사상마저도 알고 있지만 그는 절대로 그것들의 사상 중에 빠져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 간혹 사부님의 시구가 생각나는데 말해도 됩니까? 만약 말을 한다면, 반드시 전체 시를 전부 말해야 합니까? 두 마디만 말한다면, 사부님의 이름으로 주를 달아서 명시 하여야 합니까?

사부: 단지 말을 한다면 필요가 없는데, 만약 종이에 기록하거나 녹음 녹화한다면 달라진다. 사실 내가 쓴 아주 많은 시는 다 대법수련과 관계가 있는 것인바, 그럼 역시 법의 일부분인데, 그러므로 마음대로 누가 자신의 것으로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혹은 문장을 인용할 때 주의하면 된다.

제자: 러시아와 전 세계 러시아어 대법제자, 캐나다 밴쿠버, 유강위얼, 대만, 한국, 일본, 장쑤난징(江蘇南京)시, 미국 텍사스주, 상하이, 캐나다 밴쿠버 어린이제자, 랴오닝 안산(遼寧鞍山), 랴오닝 차오양(遼寧朝陽)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을 여쭙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기술에 종사하는 대법제자, 특히 사람 중에서 아주 출중한 이들은, 서로 질투 및 자아가 아주 강한데, 사부님께서 명시해 주십시오.

사부: 그렇게 엄중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한 제거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리라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수련을 잘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제거해야 하는데, 어떤 특기가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당신들은 아는가? 전체 우주·전반 인류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나, 리홍쯔(李洪志)뿐이며, 어떠한 생명이든지 다 불가능한 것이다. (박수) 그렇지만 나는 여태껏 당신들에게 자처한 적이 없는데, 그러므로 대법제자들이여, 우리가 속인의 기능을 좀 장악했다 하여 절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할 것이 별로 없다. 사실 당신이 배운 것은

역시 당신이 이런 소원이 있어서 애초에 당신에게 이렇게 배치한 것이다. 왜냐하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에 불과하다.

제자: 현재 날마다 시간이 매우 빨리 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아주 많은 일을 제때에 잘하지 못했습니다. 명후이왕에 어떤 수련생의 심득 체험에서 말하기를,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한 가지 일을 잘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시간의 문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부: 사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법제자로서는 속인의 마음이 있는 게 두렵지 않다. 관건은 어떻게 자신의 정념을 수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만약 당신의 정념이 매우 강하여 시시각각 수련인답다면, 혹은 시시각각은 아니더라도 당신이 만나는 일부 일들에서 대법제자다울 수 있다면, 당신은 바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고, 당신은 바로 신적(神跡)을 나타낼 것이며, 당신은 특수한 표현이 있고, 당신은 시비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은 일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수) 필경 여러분은 수련하는 사람이라, 당신들은 속인과 다르다. 비록 당신들이 미혹 중에서 수련하기에 대법제자의 많은 일을 체현해 내기 어렵지만, 사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초상적인 일은, 만약 당신들이 정념이 강하다면 바로 체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자: 나는 일부 친구,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나 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한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데 그들의 主元神(주웬선)은 듣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은 알아야 하는바, 나는 대법제자에게 설법하는 것이라, (웃으심) 한 속인이 오늘 들어왔지만,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물며 어린애임에랴. 그러나 사람의 생명으로서 모두 명백한 일면이 있는바, 그 면(面)은 알 것이고, 동시에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 그것을 너무 중하게 보지 마라.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면, 저쪽이 명백하여도 소용이 없다.

제자: 중국내 민중들에게 대규모로 진상을 알리는 자료에 대해, 어떤 수련생들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내용을 선택하든지 결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부: 그건 바로 또 다른 하나의 극단으로 간 것이다. 당신들은 법을 실증할 때 이지적으로 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더욱 잘하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고 어떻게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걷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다 내가 한다면, 당신은 바로 타자기가 되어 버리는데, 그럼 나는 또 당신더러 무슨 대법제자가 되라고 하겠는가? 타자기로 전생하면 되지 않겠는가? (웃 사람들 이 웃음)

제자: 여쭙겠습니다. 미래에는 여전히 법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수련해야 하는데, 정법시기에 잘하지 못한 대법제자들을 포함합니까?

사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한 점은 내가 명확히 당신들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이번 한 차례, 이번 한패는 바로 이 한 패들이다.

제자: 현재 제자들의 대법 일이 모두 매우 바쁘는데 그들에게 다시 시간을 내 속인의 글을 써서 우리 대법제자들이 신문을 꾸리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되도록 속인이 써놓은 기성의 글을 사용해도 됩니까?

사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당신들 자신의 필요에 달렸는데, 어떻게 해도 다 된다. 당신은 속인의 글을 쓴다고 당신이 중생을 구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함께 부각한 매스컴이 중생 구도 중에서 일으킨 작용에 바로 당신 몫도 있는바, 비록 당신이 쓴 것이 속인의 글일지라도 말이다. (박수) 물론, 당신은 늘 속인의 글만 쓰지 않을 것이며, 역시 일부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기타 일들을 할 것이다.

제자: 남 캘리포니아주와 북 캘리포니아주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안을 드립니다. 사존님께 여쭙습니다. 일부 노수련생들은 공능 및 에너지 등을 추구하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공과 발정념을 할 때 잠들어서, 우리가 선의적으로 일깨워주면, 그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부: 화내면 화내는 것으로, 화를 냈다면 수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왜 틀렸는데도 화를 내는가? 화를 내도 말해줘야 하는바, 그에 대해 책임지는 데 입각하면, 그가 화내는 것도 두렵지 않다. (박수)

대법제자에게 무슨 공능을 과시하는가? 뭘 과시할 것이 있는가? 사악의 흑수한테 가서 과시하면 얼마나 좋은가. 사실 당신의 모든 재주도 대법을 수련하여 비로소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닌가? 수련생에게 과시하지 말고, 또한 득의양양

해하지 말며, 자신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여기지 마라. 당신의 고만한 재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방면에서 사부가 당신에게 더 말하게 하지 마라. 아무튼, 자존심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집착심에 이끌려 흐리멍덩해진 이, 집착심이 있는 몇 명이 당신이 과시하는 것을 듣는 외에, 수련생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일단 과시하기만 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며, 당신이 본 것을 곳곳에 수련생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갖고 퍼뜨려서는 더욱 안 된다. 사실 이런 것을 수련인 속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어떤 마음을 쓰는가이다. 바르게 사용(正用)하는 것은 대법제자에게 좋은 점이 있지만, 과시하면 바로 당신이 교란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법제자는 모두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그들의 지고 무상한 영예(榮耀)와 과위를 원만 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든 끼어들어서는 안 되며 누가 끼어들면 그가 바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한 번 두 번 듣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틀림없이 구세력이 당신을 대립 면으로 밀고 가려고 하며 당신은 비로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바로 이런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바, 정말로

이 한걸음에 이르렀다면 이미 구할 수 없는 이에 속한다. 나는 구세력의 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부는 당신을 구원해 주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 거듭 재삼 늘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로 진상을 밝히는 중에, 중생을 구도하는 중에, 반박해 중에서 신통이 크게 드러난다면 나와 모든 대법제자는 모두 당신을 칭찬할 것인바 이렇지 않은가?

천체는 형용할 수 없이 크고, 아주 많은 일은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바, 당신이 아는 고만한 것은 너무나 작다. 하나의 아주 높은 신, 그가 더욱 큰 천체의 광활함과 천체의 거대함을 보았을 때, 깜짝 놀라서 어안이 병병해진다. 한 신도 이럴 것인데, 사람이 더욱 높은 공간을 좀 알게 되면 물론 마음이 움직일 것인바, 그러나 대법제자는 반드시 이지적이어야 한다.

제자: 대법제자가 꾸린 매스컴은 국외에서 기세가 드높은데, 매스컴은 정법 최후에 우리가 이미 있는 진상을 밝히는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인터넷 편지를 부치는 등의 대규모 방법으로 국내로 향해 나갑니까? 중국인의 접수 능력을 마땅히 고려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대륙 중국인은 외국과 다르며, 거짓말의 독해를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사부: 현재 우리가 한 이 일체는, 내가 말한다면 기본상



그래도 아주 이지적이며, 중국인이든, 아니면 중국 대륙 이외의 중국인이든, 모두 접수할 수 있다. 내가 느끼기에 이 매스컴은 현재 그래도 괜찮게 꾸렸으며,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방면에서 사용한 보도 방식, 쓴 글은 중국 대륙의 사람들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완전히 중국 대륙을 겨냥하는 것은, 현재는 아직 안 된다. 장래에 대법제자가 꾸린 신문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신문인데, (박수) 왜냐하면, 그런 유언비어를 날조한 매스컴도 모두 죄가 있는바, 그런 사람들도 갇아야 하며, 그들의 매스컴도 갇아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다 해 주었다. (박수) 인류사회는 1억 년이 넘는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쳤는데, 중생은 모두 이 법을 위해서 왔다. 삼계 내의 일체 생명은 모두 이 법을 위해서 왔으며, 이 법을 위해서 육성된 것이고, 이 법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만사만물을 포함한다. 인간세상의 일체 역시 다 대법을 둘러싸고 돌고(運轉) 있는바, 속인이 감각하든 감각하지 못하든, 당신이 느끼기에 그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이든 다 대법을 둘러싸고 돌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것은 이번 박해에 대하여 마비를 표현하든 관심을 표현하든, 역시 대법을 둘러싸고 돌고 있다. 정법에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일부 사람들의 이런

상태가 필요한데, 다음 한패 사람들의 수련을 위하여 봉해 두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일체는 그것이 마치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이지만, 모두 질서가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 모두 긴밀하게 이번 정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한 일체는 모두 위대한 것이며, 대법제자가 한 일체는 모두 중생을 구도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제자가 한 일체는 모두 역사적으로 전인(前人)이 한 적이 없다. 그의 위대함은 대법이 있기 때문이고, 그의 위대함은 역시 대법이 이 한패의 수련인들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대법이 삼계 중에서, 인간세상에서 널리 전해지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 작디작은 지구에서 오히려 궁대(穹大)한 천체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고, 속인의 일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의 위덕은 오히려 최고의 천체와 대응되고 있다.

대법제자들은 이미 그렇게 간고한 세월을 걸어 지나왔는 바, 나는 여러분이 최후의 길을 잘 걷기를 희망하고, 당신들이 걸어온 길을 소중히 하기를 희망하는데, 미래의 일체는 모두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체현되어 나온다.

(약 1분간 박수)

二零零五年曼哈頓國際法會講法

2005년맨해튼국제법회설법

李洪志

2005년 4월 24일 뉴욕



## 2005년 맨해튼 국제법회 설법

李洪志

(2005년 4월 24일 뉴욕)

(열렬한 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렬한 박수) (뭣 제자: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고하였다. (박수) 대법제자로서 말할 때, 여러분은 비바람 속에서 이미 갈수록 성숙하게 단련되었다. 중국대륙의 대법제자이든 중국대륙 이외의 대법제자이든 막론하고 모두 같으며, 갈수록 이지적이고 갈수록 청성하며, 갈수록 자신의 길을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박해에 직면하고 각종 비난에 직면하여, 여러분은 모두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진상을 똑똑히 알릴 때, 여러분은 모두 중생을 구도하는 소망에 따라 하였다. 그래서 일으킨 효과가 모두 아주 좋았다.

현재의 정황으로부터 보면, 특히 『9평(九評)』 이후에 수많은 세인(世人)들로 하여금 모두 각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은 사악한 공산사상이 만들어낸 중공사당(中共邪黨) 문화의 가상 덮개에 너무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

다. 사람들은 점차 청성해지고 있으며, 자아본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9평(九評)』이 발표된 후 최근의 한 시기에 이르러, 여러분은 『9평(九評)』이 발표된 후에 나타난 각종 각양의 정반(正反) 양 방면의 수많은 일에 부딪혔다. 특히 매일 수천수만 사람들의 탈당은 악당사령(惡黨邪靈)과 나쁜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무서워하도록 하였으며, 사악은 해체되기 전에 또 선동 중에서, 미혹시키는 중에서, 날조하는 중에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당신이 원래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당신이 정치한다고 말한다. 그것들은 일관적으로 사람을 박해하고 타격하면서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요언을 날조하고 세인을 선동하며, 역시 박해를 위한 이유를 찾고 있다. 그것들은 일관적으로, 누군가를 타격할 때 누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곧 무엇이라고 말한다. 대법제자는 곧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매우 청성하게 이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사악의 어떠한 거짓말과 중공 사당 문화 중의 이른바 죄명(罪名)도 모두 교란하지 못하며 모두 충격하지 못한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본래 속인의 어떠한 방법, 수단, 박해이든, 선동, 미혹이든 모두 수련인을 이끌지 못하며, 특히 대법제자에 대해서는 더욱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박해가 계속되었다. 가소로운 것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참여한 그러한 깡패분자, 깡패특무, 깡패집단의 두목들은 여전히 대법제자를 인식할 수 없으며, 여전히 이러한 수련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여전히 속인의 그러한 수작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매우 가소롭지 않은가? 그렇다. 속인은 표면으로부터 보고 속인의 사상으로 본다. 특히 당문화의 변태적인 이념으로 본다면, 수련인의 경지, 사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 속인의 마음으로 대하면 모두 맞지 않으며, 박해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사용한 어떠한 방법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세상의 이 한 층에서 인간세상의 층차와 경지보다 높은 것을 동요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할 수 없다.

『9평(九評)』이 발표된 후, 수많은 속인은 악당 사령의 날조에 이끌려 우리가 정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설사 정치를 하였어도 그 무슨 수치스러운 것이 없으며 역시 당연하지만,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우리 역시 정치를 하지 않았는데,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이 세인들의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우주는 정법(正法)하고 있는데, 이때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법을 실증하고 있으며, 중생 구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는 법을 실증하기 위하여 속인 사회의 어떠한 형식이든 정법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지만 단지 중생을 구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용할 뿐이다. 왜냐하면, 삼계 내의 일체는 모두 정법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구도해야 할 중생에 직면하여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것인가가 비로소 관건이다. 세간에서 이런 것들을 운용할 때도 또한 모두 어떻게 해야만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구원될 수 있는가를 참작하고 고려하고서야 비로소 운용하는 것이다. 삼계의 구성은 오늘의 정법을 위한 것이고, 삼계 내의 만물과 중생 역시 모두 정법을 위해 온 것이며, 정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정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곳의 중생과 만사만물은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며, 이 속의 어떠한 일이든 역시 모두 정법, 이 일을 위해 건립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제자들이 이 정법 기간에 오직 세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면, 우리는 중생을 구도하는데 편리한 어떠한 방법이든 생각대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하게 사용하고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9평(九評)』이 문제를 말한다면, 당초에 『9평(九評)』



을 발표한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바로 중공의 본질을 폭로하여 중공에 의해 속아 넘어간 한패의 세인들로 하여금 중공을 똑바로 보고 중공의 사악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 이로부터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똑바로 알릴 때, 수많은 세인이 중공사당사령(中共邪黨邪靈)과 세간 중공의 나쁜 사람들이 악당(惡黨) 문화를 이용한 선전 하에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말하기를, 중공사당(中共邪黨)이 당신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당신은 곧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악당문화에 의해 변이된 수많은 사람은, 중공이 탄압하는데 만약 자신이었더라도 역시 탄압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수많은 사람 역시 속아 넘어간 가운데 중공이 조종하는 이러한 선전기구들을 매우 믿고 있으며 심지어 여전히 중공의 깡패정권을 믿으면서 여전히 그것들의 사악한 설(說)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직면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곧 자비롭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구원해야 한다. 나는 과거에 줄곧 여러분에게 말해왔는데, 오늘날의 중국인들은 모두 간단하지 않다. 그 한 장의 인피(人皮)가 여전히 그러하다고만 보지 말라. 사실 그 사람을 주재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 아니며 다수는 모두 고층에서 내려온 생명이 주재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허다하고도 허다한 역사상 각 민족의 왕들이 중국으로 전생해 갔다. 그러므로 중국 오늘의 이 인군(人羣)은 결코 일반적이 아니다. 단지 사람이 전생하거나 신이 세상에 내려오기만 하면, 모두 미혹 속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미혹 중의 사람은 곧 쉽사리 이용당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마땅히 법을 얻어야 하며 모두 마땅히 구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큰 연분이 있다.

많은 생명이 삼계 속으로 오려고 하는데, 전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생명이 와서 사람이 되었던 간에 모두 한 명도 돌아가지 못했다. 역사상 수련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불(神佛)로 수련 성취되었든 간에 역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수련 성취된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副元神(푸웬선)이 사람의 주체를 빌어 닦은 것으로, 진정한 이 사람의 主元神(주웬선), 이 사람은 여태껏 전혀 수련 성취된 적이 없다. 백 년을 수행한 후, 잘 닦은 이는 이 사람의 형상이 수련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副元神(푸웬선)이다. 그리고 主元神(주웬선)으로서, 이 사람으로 말한다면 또다시 육도(六道)에 돌아가 전생하게 된다. 그럼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많은 고층생명이 감히 이렇게 큰 험악함을 무릅쓰고 삼계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들은 신이 아닌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법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그들이 감히 온 것은, 정법을 실증하고 이번 정법에 희망을 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말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빠뜨릴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을 구도해야 하며 방법을 생각해내어 그들을 구해야 한다! 비록 그들이 일시적으로 어리석거나 혹은 장기간 이런 당문화가 조성한 관념의 변이(變異)에 의해 진리를 인식할 수 없고 진상을 인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법을 생각해내어 그들을 구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한 가지 장애가 바로 이런 중공 사당문화의 육성과 작용 하에 중생으로 하여금 진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황 하에서 『9평(九評)』이 이런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중공의 본질을 똑똑히 보게 하였다. 이 사악의 본질을 똑똑히 본 후, 중공사당이 문화를 변이시켰음을 알았고, 많은 사람이 더는 중공사당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더는 이 망나니 정부를 믿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속인의 그 정권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중공이 여전히 최후 발악 속에서 수단을 바꾸어 중생의 구원을 교란한다면, 우리

는 여전히 다른 방법이 있는바, 불법은 끝이 없다(佛法無邊)! (열렬한 박수)

본래 이번 정법은 일체 생명을 구도하는 것이다. 이 생명이 좋든 나쁘든, 역사상 얼마나 큰 착오를 범하였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보지 않는다. 전반 우주가 다 안 되게 되어, 알아도 잘못된 것이고 알지 못해도 잘못된데, 또 누가 좋고 나쁜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를 봐서는 뭘 하겠는가? 이러한 것을 보지 않으며 전부 구도한다. 그러나 가장 관건적인 한 점이 있는데, 바로 우주 정법 시 교란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전반 우주의 생명, 삼계 내의 생명과 세인을 포함하여, 오늘날 대법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한 가지 표준으로서, 오늘날 생명이 대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를 본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애당초 이 중공사당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 무슨 사악한 중공 사당문화를 만들고, 무수한 사람과 기타 생명을 죽였든지 간에 말이다. 왜냐하면, 정법 중에서 일체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바로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수련인이 직접 이 문제를 마주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수련인이 그것을 닦을 필요가 없이, 정법 중에서 이러한 것들은 본질상 바로 잡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표면상 당신을 전혀 건

드리지 않는다. 중공사당의 그 사령(邪靈)을 포함하여 모두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금 좋은 생명으로 변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법 중에서 속인 이 한 층에서 말하자면, 본래 사회에 대해 유익한 것이었다.法輪功(파룬궁)이 중국 사회에서 전파된 몇 년 동안 중국 사회의 아주 많은 사람의 정신면모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고, 도덕이 제고되었으며, 신체가 건강해졌다. 중공은 자신의 정권이 합법적이 아님을 알고 재삼 ‘안정’과 그것의 정권 보호를 떠들어댔다. 물론 이것은 모두 속인의 일로서 우리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이 중국에서 전해짐으로써,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회를 유력하게 안정시키지 않았는가? 사람 마음이 착해지고 사람마다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사람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두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정신적 힘이 전화(轉化)하여 이루어진 물질적 힘이 이 국가와 민족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겠는가? 얼마나 큰 좋은 점을 가져다주겠는가? 민중들로 하여금 도덕이 되돌아 승화되게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겠는가? 이 사회는 누가 집권하고 있으며,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는 명백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이 교만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습관이 된 사령악당(邪靈惡黨)과 그것의 한 무리

나쁜 사람들, 그것들은 여전히 박해를 선택하였다. 그럼 좋다. 당신이 박해를 선택하였으면, 당신이 박해를 선택한 그 날부터 시작하여 못 신들은 당신을 도태시키기로 정하였다. 박해 중에서 대법제자에 대해 저지른 이 일체, 세인에 대한 독해를 모두 갚아야 한다. 기실 더욱 큰 죄악은 정법을 교란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정법 중 허다한 다른 공간의 생명이 모두 정법의 홍세(洪勢) 중에서 한번 지나가면 깨끗이 제거되며, 아주 빨리 제거됨을 알고 있다. 전반 정법 중에서 앞으로 추진할 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 간에 언제나 이 하나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공간은 부동한 시간으로 조성되었고, 매 하나의 별(星球)은 자신의 시간이 있고, 매 한 개 입자에는 자신의 시간이 있으며, 입자와 입자 사이에 구성된 범위에는 자신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별과 별 사이에 구성된 범위에는 자신의 시간이 있다. 예를 들어 9대 행성 범위, 은하계, 기타 성계(星系), 모든 성계의 정체, 이 우주, 우주 이외의 우주, 더욱 큰 범위의 우주, 일체는 모두 자신의 시간이 있다. 매 하나의 이러한 우주, 천체의 시간은 모두 다르고, 차이가 아주 크다. 전반 우주 중에서 보면, 이 우주의 정법은 손을 휘젓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손을 휘젓는 사이에, 일부 공간에서는 그

공간의 시간이 아주 빠름으로 인해 이 한번 손을 휘저을 때 그것은 몇 만 년이 지나갈 정도로 빠르다. 일부 공간에서는 이 손을 한번 휘젓는 것이, 시간이 거의 그것과 같으며, 일부에서는 몇 백 년, 몇 천 년이 걸린다. 인류 이곳은 그나마 괜찮은 편으로, 정법이 시작되어 오늘까지 십여 년의 시간에 불과하다. 물론 사부는 법을 전하기 전부터 이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다. 실제상 굉장히 빠른 것이다. 대법제자에 대해 악을 행한 사령(邪靈)과 나쁜 사람, 그것은 단지 정법이 도착하기 이전의 이 시간적 차이 속에서 악을 행할 뿐이다. 사실 시간은 아주 짧은 것으로, 만약 인류의 시간을 정법과 같은 이런 일종의 상태로 배치한다면 손을 휘젓는 사이에 끝난다. 인류 이곳에서는 시간이 아주 길게 나타나지만, 사실 이미 아주 빠르다. 정법의 속도는 반드시 아주 빨라야 하기 때문에 추진된 속도는 우주의 일체 시간을 초월하였다. 우주 구세력도 정법을 교란하기 위하여 역시 꽤 속으로 운행(運轉)하고 있으며, 삼계도 따라서 빨라졌다.

나는 이전에 당신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인류의 시간은 현재 이미 아주 빨라졌다고 말했다. 내가 예전에 당신들에게 그것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고 몇 차례 말한 적이 있다. 나는 하루가 과거의 일 초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중에 나는 또 당신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현재의 일

년은 과거의 일부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렇게 빠른 속도인데, 이 속의 생명은 오히려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속의 물체, 그것의 일체 요소가 모두 따라서 빨라지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은 부동한 우주 환경, 부동한 공간형식을 만들었다. 이곳의 생명, 일체는 모두 따라서 시간 중에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가속됨을 느끼지 못한다. 정법 형세의 추진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구(舊) 형세의 운행 역시 가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현재의 이 시간은 이미 아주 짧아졌다.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은 삼계 내의 중생들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현재 이미 인류가 시간에 대해 적응하는 극한에 거의 이르렀다. 인류가 유일하게 시간이 가속되는 대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상 중에서, 특히 연세가 좀 많은 사람은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하루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루가 아주 긴 것 같아서 늘 날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날이 어두워짐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능력 또한 따라가지 못한다. 매 한 층의 물질은 그 한 층의 극한이 있는 것으로 이 물질요소가 따라가지 못한다. 사실 정법의 속도는 실제상 아주 빠르다. 그 사악 그것들이 어떻게 흉악한지만 보지 말라. 직면한 미래



의 두려운 말로가 바로 눈앞에 닥쳤다! (열렬한 박수)

그러므로 『9평(九評)』이 발표된 이후, 대법제자들은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서, 중생을 구도하는 중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상을 알게 하였다. 특히 많은 사람은 탈당을 신청하였고, 이 사악을 이탈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탈당할 필요가 없는데, 나도 그것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일찍이 당비를 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애초에 주먹을 들고 충만된 정신으로 그 혈기(血旗)에 마주 대고 독한 맹세를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그것에게 바치고 당신은 당신의 일생을 그것에게 바치겠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탈퇴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당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인정할 수 있는가? 사람의 사상은 불안정한 것으로 사람의 대뇌는 다만 하나의 가공 공장에 불과하며, 각종 정보가 모두 사람의 대뇌를 통하여 표현되고 반영되며 이 사람을 교란하는데, 사람의 사상 내원은 극히 복잡한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태도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그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생각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어떠한 일에서나 모두 사람의 행위를 기준

으로 삼는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했어도, 하기 전에는 당신은 그의 죄를 다스릴 수 없고, 그가 한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은 그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사람의 사상 내원과 사상 자체가 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主元神(주웬선), 副元神(푸웬선) 외에 사람이 후천적으로 형성한 각종 관념, 선악 양성(兩性)이 있는데, 또 외래 요소도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사람의 행위 표현, 그것이야말로 이 사람의 진실한 체현이다. 그러므로 신(神)으로 본다면, 사령악당(邪靈惡黨)이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정법을 교란한 데 대하여, 이미 그것에게 죄를 정했으며, 이미 가장 사악한 것으로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깨끗이 제거하는가? 깨끗이 제거하는 중에서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 다만 중공사당의 사악한 영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가? 이 중공사당 사령에 협력하여 나쁜 일을 한 당원, 단원들은 바로 그것의 세간에서의 행악자(行惡者)이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그것의 구성원이고 바로 그것을 강대하게 한 하나의 분자, 사악의 한 입자로서, 바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삼계 각계 공간에서 모두 작용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세상에서이다. 허다한 사람은 수동적이 아

나라, 주동적으로 그것에게 이용되었고, 심지어는 그것에 협력하였다. 그럼 만약 이런 정황이라면, 그 중공의 이런 당원들에 대해 말한다면 두렵지 않겠는가?

이 사령악당(邪靈惡黨)은 장기간, 의도적으로 사회 중에서 성과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뛰어난 인물들을 당내로 끌어들이고 그것이 강해지도록 하였으며, 악당의 대단함을 표현했는데, 마치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았다. 실은 사악도 이런 사람들이 꼭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운동을 시작하기만 하면 곧 그들에게 손을 댔다. 하지만 악당을 청산하려 하는 시기, 정말로 법이 인간세상을 바로잡는 시기에는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 당신이 오직 그것의 구성원이라면 한 번 지나가면서 모조리 청리해버린다. 왜냐하면, 대법제자가 중생을 구도하는 중에서, 게다가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는 정황 하에서 이미 일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였으며,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중생을 구도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이런 일을 세인들에게 알렸으며, 당신들을 구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는데, 듣지 않는 것은 곧 태도를 표시한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보았으나, 오히려 탈퇴하지 않는 데, 탈퇴하지 않는 것 역시 태도를 표시한 것이다.

대법제자는 다만 자비롭게 구도하는 소원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구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작부터 줄곧 오늘날까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중생을 구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전문적으로 속인의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또 그 정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수련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생명의 원만을 이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어떠한 세간의 득실과 이익에 집착하더라도 원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련인은 세간의 수련 중에서, 바로 속인이 집착하는 여러 가지 마음을 버려야만 신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간의 어떠한 하나의 마음과 어떠한 하나의 걱정하는 요소도 모두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잠가두는 자물쇠로 된다. 그러므로 대법을 실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중생을 구도하는 동시에 역시 모두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있다. 이 한 점에 대해 여러분은 모두 아주 똑똑히 알고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속인의 그런 것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

속인으로서, 법을 얻지 못한 사람, 대법제자를 요해(了解)하지 못하는 사람, 수련 밖의 사람, 그는 대법과 대법제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속인의 마음속에는 이익이 가장 크다. 많은 민주인사, 각종 민간 정치단체의 사람도 중공사당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그들이

일을 성사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어떤 행위는 정말로 형편없어 사람들이 우려하게 한다. 정말로 그 정권을 당신에게 맡긴다면 되겠는가? 개인 이익의 집착이 그렇게도 강렬하여,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서로 간에 이익이 연관될 때 부딪히기만 하면 자신들끼리 서로 먼저 싸우기 시작하는데, 신이 어떻게 한 민족의 큰 책임을 당신들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박수)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이 일보에 이르러 나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기실 전반사회의 상태와 인류사회의 도덕이 모두 크게 미끄럼 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미끄럼 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이미 흥금이 좁아졌다. 개인 이익에 대한 집착이 이미 당신의 정치적 포부를 능가하였으며, 정치적 호소와 추구를 능가하였고, 포부를 위하여 분투하려는 뜻을 능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속인으로 말하면, 도덕관념은 마찬가지로 매우 주요한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의 도덕관념이 문제 된다면 그건 정말로 신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생명이든 막론하고 뜻이 있고 덕(德)이 있어야만 비로소 쓸 만한 그릇이 되는데, 이것은 틀림없다. 장래에 법정 인간 시기에, 혹은 그전에 중공사당이 무너진다면 누가 집권할 것인가? 우리 대법제자는 집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는 수련인으로서, 사람은 세속 중에 있지만, 생각은 그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한 그 정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박수) 그럼 누가 되는가? 신은 바로 그런 큰 뜻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도덕이 고상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희망하건대 오늘날 법을 실증할 수 있는 속인·중공사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대법제자가 아닌데, 모두 대단한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로 속인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자신의 수양도 중시해야만, 비로소 그렇게 큰 책임을 담당하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박수)

조금 전에 내가 한 이 말은 가외의 것이다. 사실 수련인을 놓고 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전혀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일부 신수련생이 있으며, 또 일부 아직 대법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늘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나, 리홍쯔(李洪志)는 금생금세(今生今世)에 중국에서 전생하였고, 이 민족에 대하여 깊은 요해(了解)가 있으므로, 나도 중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 (박수) 시간 관계로, 당신들은 또 발언해야 하므로 나도 더 말하지 않겠다. (박수로 만류)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말하면 현재 당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형세를 교

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허다한 수련생들이 현재 법을 실증하는 형세와 무관한 문제를 많이 제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오늘 많이 말한다면 당신들이 오늘 하려는 일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황을 중요시해야 하며, 현재 해야 하는 일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는 기본상 이리하다. 만약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면, 대법제자 또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당신들이 중생을 구도할 때, 자신을 수련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수) 세 가지 일은 모두 해야 한다. 여러분은 평소에 정념(正念)을 유지하며, 늘 사악을 마주하거나 일부 정황을 마주했을 때 발정념을 해야 하며, 진상을 밝혀야 하고 중생을 구도해야 하며, 더욱이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잘 수련하지 못한다면 곧 위덕이 없으며, 한 말이 법에 있지 않으면 중생을 구도한다는 것을 말할 나위가 없으며, 한 말에 위덕이 없고 힘이 없다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며, 사악도 틈을 탈 것이다. 심지어 만약 자신을 잘 수련하지 못한다면 정념도 부족하게 되며, 일부 일을 처리할 때 속인의 그런 생각에 치우칠 것이다. 그럼 중생을 구도하는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허다한 속인, 그들도 사실 대법제자를 도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속인이 대법제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대법제자이며, 당신들이 하는 것은 당신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이고, 또한 자신의 위덕을 세우고 있는 것이며, 신의 길에서 원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수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방면에서 나도 더 많이 말하지 않겠고, 시간을 더 많이 점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법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라.

대법제자가 아무리 간고하고 어려우며, 길을 걷기가 아무리 어렵든지 막론하고, 당신들의 앞길은 모두 광명한 것이다. 여러분도 갈수록 앞길의 광명을 보았으며, 또한 갈수록 자신이 걸어야 할 이것이 어떤 길인지 분명해졌다. 사부는 당신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체를 준비해 놓았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곳까지 걸어가야만 한다! (열렬한 박수)

대법제자가 오늘날 이 일보에 이르러,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다. 심지어 사악마저도 모두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한다. 현재 그런 사악들은 기본적으로 이지가 없으며, 선천적으로 구세력이 배치한 요소에 따라 이용당하여 정법을 교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악한 생명은 대법제자 부근에 이르지만 하면 후다닥 뛰어 달아나며, 어떤 것은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신



심이 부족해 나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제자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 모두 정정당당해야 하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악이다.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초기에는 마치 고립된 것 같았는데, 그때 사악의 요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기실 그때도 고립된 것은 아니었는데, 신(神)이 있었고 사부의 법신이 있었으며, 공(功)이 있었고, 또 당신들의 잘 수련된 일면도 있었다. 오늘날 이 형세는 더욱 달라졌다. 매우 많은 사악한 요소가 없어졌으며, 악당사령(惡黨邪靈)이 적어졌고, 대법이 세간에서 형성한 장이 이미 매우 크며 밀도도 이미 매우 높아졌다. 이 장은 현재 주로 대법제자를 도와 중생을 구도하고 있으며, 사악을 억제하고 있고, 그런 주요한 사악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세인의 속인 일에 대해서 기본상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장이 보편적으로 작용을 발휘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상당히 불만한 것으로, 이미 중공 사당(邪黨)의 사악한 장(場)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게다가 사령악당(邪靈惡黨)의 장은 급속도로 해체되고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악은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다.

이 장(場)은 기실 다만 대법제자를 도와 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세인을 고무 격려해 주고 있으며, 또한

중국대륙 심지어 대륙 이외의 중국인의 담력과 기백을 복돋아 주고 있고, 또한 그들을 도와 사악 요소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전면적으로 정면(正面)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길을 더욱 잘 걷고, 정정당당하게, 좀 더 강한 정념으로, 좀 더 잘 하기를 희망한다. 어떤 정황에 부딪히고, 어떠한 정황 하에서든 막론하고, 모두 대법제자다워야 하며, 충동되어서는 안 되며, 정념이 충족해야 한다. (박수)

대법제자의 오늘날 이런 수련형식과 수련상태는, 이전의 수련, 수행 형식과는 다르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광범위하게 중생을 구도하고 있으며, 당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렇게 큰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표현된 상태는 과거의 수련과 완전히 같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러므로 더욱이 자신의 수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함을 얼버무려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길을 잘 걷기를 희망한다. 더 많이 말하지 않겠다. 이만큼 말한다. (장시간 열렬한 박수)

二零零五年加拿大法會講法

2005년캐나다법회설법

李洪志

2005년 5월 22일 토론토에서



## 2005년 캐나다 법회 설법

李洪志

(2005년 5월 22일 토론토에서)

(열렬한 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 (못 제자: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99년 7.20 이전에 우리 토론토의 법회를 바로 여기에서 열었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열렬한 박수) 당시 사악한 중공의 탄압박해가 시작되려고 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을 했었다. 하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一個不動能制萬動)! 라고. (열렬한 박수) 물론 어떤 수련생들은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곧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사부님 웃음) (못 사람 웃음) 움직이지 않는 것이란, 바로 견정(堅定)한 정념과 바른 신념(正信)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법제자가 중생을 구도하는 책임과 마난(魔難) 중에서 자신을 제고하는 수련의 길을 모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찌 될 말인가? 어떻게 하든지 막론하고, 수련이기 때문에 매 개인은 모두 같지 않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또 속인 중에서 같지 않은 정도의 집착을 가지고 대법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도 있다. 수련과정 중에 많은 사람 마음 역시 제거하기가 몹시 어려우며, 이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 상에서, 인식 상에서 같지 않음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한 차례 마난 중에서 또한 대법에 대한 수련생들의 같지 않은 인식이며, 집착심의 다소(多少)를 충분히 표현해내었는데, 박해 중에서 각양각색의 표현 상태를 여러분 역시 모두 보게 되었다. 이 한 차례 박해는 우리에게 강제로 강요된 것이며, 이는 승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박해 중에서 역시 수련 중의 부족(不足)을 확실히 보게 되었고, 대법제자의 대단한 일면 역시 보게 되었다. 사부를 따라 오늘 까지 걸어올 수 있으며 박해 중으로부터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단한 것이다! (열렬한 박수)

나는 이전에 대법제자의 수련에 만약 이번의 박해가 없었더라면 대법제자의 수련에는 다른 일종의 방식이 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지난 일이며,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무슨 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하더라도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진정한 대법제자들이 법에서 자신을 견정(堅定)히 할 수 있고 자신을 제고할 수 있으며 박해를 반대하는 중에서 중생을 구도할 수 있으며,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한 차례 박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엄혹하며 얼마나 비열한가를 보았다. 그것은 역사상 신불(神佛)제자에 대한 종전의 박해와는 같지 않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바로 역사상 어떠한 박해든 모두 공개적이었지만, 오늘날 중공사당은 이미 인민을 박해한 역사상 각종 사악한 경험과 깡패 수단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이 한 차례의 박해, 사악한 탄압의 수많은 수단은 모두 암암리에, 은밀한 상태 하에서 진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인(世人)들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하고, 사회의 경악을 불러일으키며, 이 한 차례 박해에 대한 세인들의 분개(憤慨)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대법제자에 대한 성원을 일으키는 것은, 마치 모두 하기가 몹시 어려운 것 같은데, 사악이 진상(真相)을 덮어 감추고 있으며, 게다가 박해수단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이제껏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중공사당(中共邪黨)이 백 년 넘게 이미 경험하며 구비해온 가장 사악한 것으로서, 그것들은 그것들의 박해 죄행(罪行)을 극히 은밀하게 덮어 감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법제자에게 강제로 가해진 이 한 차례 마난(魔難)은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었다. 애초에 박해가 시작될 때 그것들이 채용한 방식은 공개적이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사악한 기세로 대법제자들을 압도하려고 망상하였다. 사악한 세력, 썩은 귀신, 악당(惡黨)은 해내지 못했다. 나중에 그것들은 시간이 길어지면 곧 국제사회의 중시와 중국 민중들의 반감을 일으켜 사회상의 광대한 민중들이 곧 대법제자를 성원하려 하고 곧 반(反) 박해를 성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것들은 곧 이 한 차례 박해를 점차 비공개적인 박해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표면상으로 보기에 중공사당이 또 승리한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에게 일종의 표면적인 평온함을 주고 태평한 양상을 꾸미면서, 암암리에는 오히려 여전히 음험하고 악독하게 대법제자를 박해하였다. 심지어 후기에 와서는 중공 일언당(一言堂)의 라디오방송, TV, 신문마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압박해의 수단은 오히려 느슨한 적이 없었다. 이는 역사상 이제껏 있어본 적이 없었던 민중에 대한 깡패정부의 박해수단이였다. 여러분 보다시피, 전 세계 각 나라의 주류 매체들은 이러한 정황 하에서 대다수가 대법제자들이 박해받고 있는 정황을 모두 보도하지 않았으며, 죄악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중국이 현재 전 세계의 경제시장으로 되어 많은 나라가 모두 이 투자



환경을 탐내고 있다. 결국, 중공에게 그 무슨 대단한 자원이 있다거나 혹은 중공이 좋게 변하여 중국의 환경을 바꾸었다거나 혹은 중공사당에게 무슨 좋은 수단이 있어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매우 간단하다. 왜냐하면, 바로 중국인들이 중공에 의해 가난해지자 가난이 두려워져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기 때문이며, 게다가 중국인들이 근면한 까닭에 일을 비교적 오래 하고 안정적이다. 바로 이 한 점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상의 많은 민족의 사람들은 그가 일단 돈을 좀 벌기만 하면 그는 곧 그만두며 돈을 다 쓴 후에야 다시 직장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공에 의해 가난해지자 가난이 두려워서 돈을 많이 모으려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특징, 오로지 돈만 모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던 시종일관 모두 해나가려고 하는 바로 이 한 점이 안정된 노동력이 필요한, 특히 안정적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사당 역시 중국인들의 이 심리를 거머쥐고 또 중국인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금, 대량의 재력·물력·인력을 이용하여 인민을 탄압하고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많은 나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한 차례 박해에 대하여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박해 중에서 우리도 보았다시피 인류사회가 선양(宣揚)하는 어떤 것도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인권(人權)을 말하고 있고, 국가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켜세우고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은 마치 모두 이런 것들을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건과 사람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공이 극히 사악하고 극히 엄중하게 중국인과 인권 및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박해하고 있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정부와 매체는 오히려 잠잠할 뿐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익 앞에서는 무슨 신앙의 자유며, 인권은 모두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변했다. 무슨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 시기 인간의 이른바 양심 역시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일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선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법(大法), 이는 당신들이 수련 중에서 인식해낸 우주의 진정한 진리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정황 하에서든지,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모두 수호해야 할 바른 이치이며,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사람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수련자들이 정념만 충족하면 모두 그 속에서 제고를 얻을 수 있으며, 계시(啓示)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정념을 강화시켜 어떠한 속인의 수단과 사악의 유혹에도 교란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자 신(神)에 대한 사람의 바른 믿음(正信)이며, 이것이 바로 수련인이 승화하는 중에 진리가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며, 속인이 허풍 치는 이른바 속인의 이익을 수호하는 어떠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 일체는 모두 속인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제자들은 이번 박해 중에서 비로소 걸어 나올 수 있었다.

사실 전 세계의 많은 정부와 거의 모든 대형 매체가 태도를 밝히지 않은 데에는 이 두 가지 원인 외에도 또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구(舊) 우주 중의 구세력의 요소가 전 세계에서 법을 얻지 못한 기타 사람들을 격리시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목적은 이런 부분적인 지역에서 대법제자들로 하여금 ‘고험(考驗)’ 받게 하자는 데 있다. 세인들이 참여한다면 대법제자에 대한 ‘고험’은 곧 그토록 사악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며, 그것들이 대법제자에 대하여 배치한 이 엄혹한 이른바 마난 중에서 그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어떻든지 간에 이 한 차례 박해 중에서, 나와 대법제자들

은 이 한 차례 박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한 차례 박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중에서, 사부인 나의 요구에 따라 당신들 특유한 수련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법제자로 말할 때 자신의 책임 중에서 이 일체를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진(精進)이다. 이전에 나는 여러분과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말하기를, 수련이란 과거의 어떤 수련인에게도 모두 마찬가지로 하나의 몹시 어려운 수련상태가 있는데, 바로 간고하고 장기적인 고탈이다. 더욱이 속인 현실의 이익 중에서 수련하는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다. 여러 면의 이익이 모두 수련인을 유혹하고 있어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상, 당신의 인식, 심지어 사람 마음까지도 모두 물결 따라 표류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수련방식은 매우 어렵다. 어려우므로 오늘날 대법제자로 말하면, 또 다른 한 방면으로부터 그가 높이 수련할 수 있음을 체현해내었다. 환경이 어렵지 않으면 수련자의 사람 표면, 이 사람의 생명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고탈에는 곧 그토록 참여함이 없게 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이든, 과거 역사상의 각종 수련방식이든,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가장 표면·진정한 이 사람을 겨냥하여 수련 중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이 수련 성취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다수는 장기적인 입정(入定) 중에서 수련하였다. 정(定) 중에서 연화되어 나온 집착심을 제거할 때 표현되는 각종 상태는 오직 수련인의 副元神(푸웬션)에 대해서만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속인 사회 중에서 대법제자들의 이러한 수련형식은 수련자들로 하여금 제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속인의 각종 집착심, 사람의 이익에 대한 표면적인 각종 유혹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되게 하였다. 이리하여 수련인의 표면수련에 대한 중시(重視)를 축성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또한 표면적인 사람 일면의 개변이 관건 적이었는데, 즉 수련 중의 가장 어려운 중점(重點)이 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선결 조건은 구도와 제고의 목표가 바로 사람의 주체(主體)라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사람의 진정한 수련이 또한 제1위가 되었으며, 수련의 방식 또한 사람의 표면에 대한 직접적인 고흘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副元神(푸웬션)과 전반 인체의 기타 생명체에 대한 고흘은 것처럼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미혹을 타파한 같지 않은 상태 하에 있으나, 이 사람은 오히려 직접적인 현실이익의 고흘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법제자의 수련특징이다. 무엇 때문에 나는 줄곧 “사람이 정말로 신(神)으로 수련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가. 바로 “형식상 정말

로 사람이 수련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인체(人體)가 수련 중의 주체(主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한 부의 대법이 전해진 초기에 수많은 신(神), 그들도 모두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너무나 중시한다고 말했다. 말인즉, 당신이 우리를 중시하지 않고 사람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누가 사람을 인정했는가? 사람은 그토록 집착하고, 행위는 그토록 저열(低劣)하며, 이성이 똑똑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왜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는가? 물론 수많은 원인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전에 내가 당신들에게 설법할 때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저층의 신(神)은 인류 표면의 진실한 정황을 모르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지나간 세월 중에서 겪은 바가 너무나 많으며, 사람의 표면은 윤회전생 중에서 또 그토록 많고 그토록 많은 것들을 견뎌왔다. 정법은 중생을 구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을 제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법이 우주 중에서 정법 하는 것은 과거의 그런 일종(一種)의 수련이 오직 어떤 일종(一種) 혹은 일정한 범위의 생명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이런 일종의 표현이 아니다. 정법은 신(神)이 만든 사람 주체상의 모든 생명의 존재방식을 포함하여 구도할 수 있는 모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토록 긴 세월의 고난을 지나왔는데, 구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삼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가? 삼계 내의 중생을 모두 구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수련 방식과 사람이 역사의 이처럼 긴긴 세월 중에서 다져 놓은 그 기초, 감당한 그런 고난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위덕(威德)을 구비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명 역시 가장 대단한 것으로, 우선으로 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람 이곳을 정법의 기점으로 삼는다면,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 이 부분의 생명을 해탈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또 이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상에서 곧 오늘의 이 일체를 보았고, 삼계 형성의 초기에 곧 사람의 가장 표면적인 사람의 형체에서 시작하여 계속하여 장래 정법 시기에 필요한 생명과 조건을 배치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생명으로 하여금 긴긴 세월을 걷는 중에서 거대한 위덕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표면 역시 간단하고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저능한 행위와 저능한 지혜는 사람의 경지와 삼계의 환경에 사람을 만들 때의 표준이 더 해져서 제한된 것이다. 단지 현상으로부터는 투철하게 보아 내지 못할 뿐이다. 왜냐하면, 층차가 높은 요소일수록 인체 표면상에서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 발견하

기 어려움으로써 사람의 진실한 정황을 감지 않은 층차의 생명에 대해 말한다면, 이 진상은 줄곧 은폐된 것이다. 모든 일체의 신이 삼계와 우주의 관계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역사상 인류사회에 남겨진 허다한 문화와 예언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은 심지어 삼계에 근접한 신조차 모르고 있다. 이것은 매우 기괴한 현상이 아닌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왜 모르고 있는가? 인류 역시 역사의 일부 철리(哲理) 중에서 일부 바른 이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특히 인류 역사상 남겨진 매우 정확한 그러한 예언들을 그 신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인류 사회와 삼계 중에는 아주 많은 미혹이 있으며, 많은 미혹은 신이 모르는 것이다. 또한, 인류의 시간과 허다하고 허다한 신의 시간은 무척 크고 무척 많은 차이가 있다. 사람을 하나의 입자라고 말할 때, 그럼 사람을 초월하는 더욱 큰 입자의 신을 체적으로 비유한다면 그는 인류사회의 긴 역사를 관찰할 수 있고 알고 요해(了解)할 수 있으나, 역시 아주 제한적이다. 만약 이 체적이 인류의 이 입자보다 작거나 혹은 분자 입자보다 작은 신이라면, 그의 시간은 곧 아주 빠르다. 그래서 허다한 생명, 그는 삼계의 근본 역사와 삼계가 존재하는 목적, 생명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아예 모른다. 신은 진정으로 사망할 수 없지만, 그 역시 그의



그 경지 속에서 재생(再生)될 수 있다. ‘재생(再生)’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형용하자. 그 역시 우주 중의 과거에 존재했던 성주괴멸(成住壞滅)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치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어서 새로 환생하는 것과 같다. 우주를 만들 때의 법리 중에,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한다(周而復始)는 원칙을 정하였기 때문에 신의 경지 중에도 이 상태가 있다. 다만, 신은 그의 그 시간에서 지극히 길게 나타날 뿐이다. 아울러 신의 재생 과정은 그 자신도 다 아는바, 사람과는 같지 않은데, 재생(再生)이다. 죽는 것을 말하자면 아주 두려운 것으로, 내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는 모두 미혹 속에 있는 것이며,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신의 상태 하에서 신은 알고 있다. 다만, 재생 중에 이전의 기억을 씻어버릴 따름이며, 재생할 때 이전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단지 이러한 일종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일체는 그들로 말한다면 멀고도 멀어 마치 생명의 종결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재생 과정 중에서 이전의 일을 그는 모두 모른다. 낱낱 세월 속에서 우주의 모든 신이 삼계 내의 역사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정법을 포함하여, 또 모든 신이 다 어찌 된 일인지 아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모두 정법의 매 일보를 다 이해하고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계 중생 역시 단지 정법

이 그의 눈앞에 곧 다가올 때라야만 그는 비로소 볼 수 있고, 정법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그도 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우주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번 정법 중에서 부동한 표현이 있게 하였다. 바른(正) 인식, 반면(反)적인 인식, 소극적인 인식 바로 이러한 일종 상태이다. 우리는 오늘날 인류 사회의 사람들이 표현해낸 모든 상태를 보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상계(上界)의 정황과 대체로 비슷하다.

99년 7·20이전에, 대법이 널리 전해지는 중에서 각계 중생과 못 신들은 모두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들은 모두 “아이고, 대법은 정말로 좋구나. 이렇게 좋은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다니 너무나 애석하구나. 게다가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 전하다니.”라고 말했다. 그럼 또 일부는 이러한 시기에 전해져야만 비로소 대법이 더욱 대단함을 체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 또 일부 생명은 리홍쯔(李洪志)는 자비하니 일체 좋지 못한 것들을 모두 그에게 밀어 주어 그로 하여금 죄업을 없애버리게 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 기회를 빌려 나쁜 짓을 한 것이다. 그러나 놀려 내려온 죄업은 하늘과 같이 컸고, 많은 신은 이런 정황을 보고 모두 ‘이런 정황 하에서 그가 여전히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 모두 다른 생각과 인식을 품고 있었지만, 그 당시

총체적으로 말하면 정면 작용을 일으킨 이가 여전히 주도(主導)적이었다. 그러나 99년 7.20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의 생각은 또 변하였고, 많고 많은 각계 생명은 모두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품고 썩은 귀신들이 악을 행하고 박해하는 것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았는데, 마치 당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다는 것 같았다. 당신이 만약 된다면,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당신에게 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구세력(舊勢力)·구(舊) 생명에게 건드려진 후 조성된 저애력과 세간에 충만 된 사악한 기세를 보고 중생들은 각자 사념(私念)을 품었다. 다수는 아마 이 일은 성공하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으며, 만약 안 된다면 그럼 나도 연루될 수 있다고 여겨, 이 때문에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다. 각계 중생은 거의 모두 이런 상태였다. 우주의 법은 바로 각계 중생을 구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생에 대해 요구가 너무 높아선 안 된다. 모두 그렇게 바르다면 우주도 정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렇고, 안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법과 대법제자에 대한 신(神)의 표현이었다.

물론, 전반 정법의 형세가 끊임없이 앞을 향해 추진됨에 따라, 세상과 전반 삼계 내의 형세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이 본 오늘날 세인의 그 표현은 천상(天上)과

아주 비슷하다. 다른 한 방면에서 말한다면, 만약 아주 많은 세인의 생명이 천체에 대응되고 그의 내원(來源)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 그것은 이 시각 상계(上界)의 상태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람 표면은 똑똑하지 못하다. 현재 많은 사람이 지금 모두 나서려고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각계 중생, 각계의 왕이 모두 대법(大法) 정법(正法)이 반드시 성사되는, 막을 수 없는 추세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을 다투어 태도를 표시하고 앞을 다투어 어느 정도 표현하고자 한다. 구(舊) 우주 최후의 요소는 일찍이 이 일보를 보았다. 우주 중에는 허다한 더욱 높은 최후의 생명이 아직도 있으며, 비록 구세력의 요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것 역시 구(舊) 생명이며, 그것도 그것이 변이된 후의 관념을 품고 있다. 대법제자들에 대하여 그것은 과거 우주의 선천적인 부족함과 변이된 특성을 안고 그 일체를 수호하고 있다. 대법제자에 대하여 그것들은 이런 박해가 그들을 수련시킬 수 있다고 여겼으며, 그것들의 관념은 저에 작용을 일으켰다. 또한, 그것들은 표면 세간과 각계의 간격을 조성하였으며, 또 세인들의 법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였다. 그것들은 이런 상태에서 걸어나가야만 비로소 되며, 하계(下界)의 중생과 세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태도 표시를 해야만 비로소 남겨질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상태에서의 선택은 이 생명이 대단함을 표현해낸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정법의 상태가 이를 필요로 하는지 않는지를 인식하지 못했고, 가장 관건적인 것은 미래의 우주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정법 중에서는 또 이런 부면(負) 적이고 반대(反)의 요소를 승인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시기에 한 생명의 정법에 대한 태도야말로 비로소 지극히 관건 적이며, 중요한 것으로, 그중에는 이른바 정법을 좌우지 한다는 최후 최고의 이런 생명을 포함한다.

정법(正法), 이는 일체 생명의 장래에 관계되며 단지 대법제자, 세인 혹은 각계 중생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 정법의 홍대(洪大)함에서 누가 제외될 수 있겠는가? 동시에 정법에 대한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누구도 중생이 무지한 정황 하에서 정법 자체(本身)와 대법에 대하여 죄를 범하도록 봉쇄시킬 권리가 없다. 애초부터 구세력, 이런 요소의 교란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어떠한 요소의 교란도 없이, 중생들이 완전히 통제당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이 일을 보고 이 일에 대해 태도를 표시하는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진실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배치는 그것들이 누구를 좋은 생명으로 배치하고 싶으면 그를 좋게 배치하고, 그것들이 누구를 나쁜 일을 하도록 배치하고 싶으면 그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배치하도록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중생 자신의 진실한 표현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우주 중 최후의 구(舊) 요소는 여전히 미래에 필요로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교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본 세간 생명의 표현은, 비록 구세력의 좌우 하에 있지만, 각계 중생, 못 신도 모두 점차 대법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인정은 또 진정으로 대법과 정법, 대법제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접수가 아니라 정법의 성공이 온 천체(天體)를 홍관(洪灌)시킨 기세가 그로 하여금 어찌할 도리가 없게 한 것이다. 물론 또 상당히 많은 일부분은 정말로 명백해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런 정법의 추세와 미래의 일체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일체를 세간 사람들은 물론 똑똑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중공 깡패 정권의 박해에도 놀라 쓰러지지 않는 것만 보았을 뿐이며, 일종 사람의 인식을 표현하였는데, 바로 “와! 法輪功(파룬궁)은 대단하다. 파룬궁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악한 중공사당에 탄압당하고도 없어지지 않았으며, 반대로 갈수록 흥성해지는구나. 그러나 중공은 도리어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 자신을 무너뜨렸으니 역시 法輪功(파룬궁)은 대단하다!”라고 한다. 그

리고 대법제자가 표현해낸 정념의 자질은, 중국인을 놓고 말할 때, 마치 중화민족의 도덕이 되돌아 승화하는 일종의 희망을 보게 한 것과 같았다. 탐관오리, 사회 범죄는 중공 통치 하의 사회에서 이미 견잡을 수 없이 난잡해졌다. 거기에 또 정법 초기 중국인으로 하여금 법을 인식하고 법을 얻게 하려고 그 당시 중국인의 사상을 열어놓아, 중국인들로 하여금 아주 총명하게 변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 총명은 이 한 차례 박해 속에서 그가 법을 인식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이 몇 해 동안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중에, 眞(眞)·善(善)·忍(忍)을 타격하고 사악한 것을 선양하며, 중생의 범죄방식도 지극히 음험하고 복잡하게 변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현실 정황을 겨냥하여, 중공 깡패 집단은 어떠한 방법도 아예 없다. 그것들 자신이 만들어낸 죄악, 사회의 복잡함을 마주하고 그것들은 전혀 돌이킬 힘이 없다.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말들은 바로 내가 오늘 또 이곳에 앉아 여러분에게 설법하기 때문이다. (열렬한 박수) 시간은 이미 5~6년이 지나갔고, 내가 오늘 이곳에서 설법하니, 아마 여러분의 심정 역시 같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곳에 앉아서 법을 들었던 수련생들은 아마도 느낌이 더욱 다를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악하고 잔혹한 박해 속에서 대체

로 걸어 나왔다. 왜냐하면, 정법 중에서 사악한 중공사당의 요소는 대량으로 급속하게 쾌속으로 소훼(銷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사(邪)이고, 바로 악(惡)이며, 바로 나쁜 것(壞)이다. 그것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것은 여전히 나쁜 일을 한다. 이 때문에 중국 그곳에서 중공사당의 사악한 요소는 비록 민중과 세간의 수많은 세인에 대한 억제가 비록 모두 제거되고 있고 완화되고 있으며, 감소하여 큰 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것을 철저히 모두 깨끗이 제거해야만 이 한차례 박해도 결속된다. 중공사당, 이런 사악한 요소는 반드시 신(神)에 의해 정법 중에 청리(淸理)되어 버릴 것이다! (열렬한 박수)

중공사당 역시 자신이 곧 무너지게 될 것임을 보았고 또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보았다. 많은 사람은 모두 퇴로를 남기고 있으며, 많은 사람은 모두 이 한 차례 박해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행을 덮어 감추고 있다. 물론 더욱 많은 사람은 그 사악한 중공사당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 이 일체는 사악한 당(邪黨) 그 사당(死黨)으로 하여금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이 탈당은, 그것들이 놀라 살이 떨리게 하였다. 대세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들은 이 일체가



안 됨을 이미 보았다. 속인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중국 사회와 민족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든지 막론하고 그것은 모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자고이래로 신(神)은 모두 인류의 어떠한 한 민족,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한 통제를 느슨히 한 적이 없다. 신이 이 사회를 혼란하도록 하면 이 사회는 혼란해지고, 신이 사람에게 미치라고 하면 미쳐야 하며, 신이 어느 사회를 안정되게 하면 이 사회는 안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커다란 증공사당 진영(陣營)도, 그것으로 하여금 해체되라고 하면 며칠 만에 모두 해체된다. (박수) 신이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달렸는데 바로 이렇지 않은가?

인류사회 이 일체는 모두 정법을 위하여 창립된 것이고 오늘날 모든 일체 역시 모두 나의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기억하라, 당신들이야말로 오늘날 인류사회의 풍류 인물들이고, 당신들이야말로 중생들이 가장 주목하는 생명이며, 당신들은 또 인간세상의 매 한 사람 미래의 생명을 결정하고 있다! (박수) 때문에 중생을 구도하며 당신들 자신을 잘 수련하는 이 일은 여러분으로 말한다면, 대법제자로 말한다면,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단지 당신 자신, 이 생명의 원만뿐만 아니라 또한 중생을 위한 것이며, 당신들에 대한 보다 많은 생명의 기대

를 위한 것이다! 나는 이만큼 말하겠다. (장시간 열렬한 박수)

현재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나는 기타 내용을 너무 많이 말하여 당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희석시킬 수 없다. 지금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므로 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감사하다! (열렬한 박수)